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2월 28일 화요일(한국시간 3월 1일) 오전 뉴튼 소재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열린 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 3장을 외치고 있는 김경원 보스톤 한인회장 대행, 엄성준 총영사, 남궁연 전 한인회 관 재산관리 위원장(사진 좌측부터)

## 탄핵 정국속 익숙한 3.1절 기념식, 색다른 의미

3.1절 뉴잉글랜드 단체장들 총영사관서 기념식  
한인회장들 엄성준 총영사에 상장, 감사장 수여  
한국 어려운 시기에 리더십의 중요성 다시 새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98주년 3.1절 기념식이 2월 28일 화요일(한국시간 3월 1일) 오전 뉴튼 소재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탄핵재판이 진행 중이란 점에서 달랐다.

보스톤 총영사관의 주최로 개최된 3.1절 기념식에는 보스톤,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를 비롯해, 시민협회, 노인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등 기관단체장과 한인사회 지도자들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보스톤 총영사 임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BBQ 보스톤 입점



3월 오픈 올스톤 하버드 예비뉴 3월 오픈. 웰빙 (올리브 치킨), 패밀리 레스토랑 컨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 내 최대 가맹점을 보유한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BBQ치킨이 3월초 보스톤에 진출한다.

제네시스 그룹의 BBQ치킨은 지난 2003년 중국에 해외 첫 지점을 창립한 이후 2006년 뉴욕 맨하탄에 1호 직영점을 시작으로 미국에 진출한지 11년째로 현재 100여개의 지점이 구축되었다.

패밀리 레스토랑 컨셉으로 개장될 보스톤 지역 1호점은 올스톤 하버드 예비뉴 보스톤코리아 대각선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 치킨프랜차이즈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BBQ는 1995년 경기도 연천 작은 매장에서 시작했다. BBQ 치킨의 창립자이자 제네시스 그룹 윤흥근 회장(62)은 조선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대상그룹에 근무하다 사표를 내고 이 치킨점을 세웠다.

자신의 모은 1억과 친지, 지인들에게서 빌린 4억을 합해 총 5억을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윤 회장은 창립후 1년만에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한국행항공권 \$889~

KOREA JAPAN PACKAGE

전국방문객에 도리어행도 즐긴다!  
왕복항공권(한국행 포함)  
\$1,890~

IACE TRAVEL  
문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Dr.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617.731.1001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Century 21

주최 | 지도 | 마케팅  
성실한 고객서비스  
Eileen Park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REMIERREALTY.COM

# 기관단체장과 한인사회 지도자들 30여명이 참여

▶▶1면에 이어서

엄성준 총영사에게 상이 집중됐다. 김경원 보스톤한인회장은 재외동포신문을 대신해 엄성준 총영사에게 <발로 뛰는 총영사상>을 전달했다. 또 뉴햄프셔 한인회는 뉴햄프셔를 멀다 하지 않고 대소 한인회 행사에 참여한 엄성준 총영사에게 영문으로 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처럼 총영사에게 상이 수여된 것은 보스톤 총영사관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발로 뛰는 총영사상>을 전달한 김경원 보스톤한인회 회장대행은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 나라가 힘드네 총영사님이 동포들과 호흡을 함께 해주니까 해의 있는 동포들도 힘이 나고 단결과 융합이 이뤄질 수 있었다. 총영사님이 호의적이고 동네 어른 같은 역할을 하셨다. 당연히 받으셔야 할 상이었다” 말했다.

지난해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나누다 눈물을 보였던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엄총영사님이 처음 한인행사에 참여한 것은 뉴햄프셔 한인회 참전용사 보은 행사였다. 뉴햄프셔 마지막 공식행사로 포츠머스시와 포츠머스 조약 장소인 웨스트스 호텔을 함께 방문했다.” 며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해준 총영사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유영심 노인회장은 “총영사님 오

셔서 노인회, 국제선 안다니는 곳 없이 다 다녀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과연 이런 총영사님이 또 오실(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고 엄총영사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앞서 오진관 영사의 사회로 기념식은 국민의례, 3.1절의 노래 합창, 노인회 회원들의 만세 선창에 따라 참가한 단체장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엄성준 총영사는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국의 운명은 한국인들의 손에 의해 결정하고자 독립을 선언하고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 만세’ 합성이 울려 퍼진지 98년이 지났지만 나라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엄총영사는 한인합방을 미국이 용인했던 포츠머스 조약이 타결된 뉴햄프셔 포츠머스 시를 지난 2월 초 돌아본 것을 회상하며 포츠머스 시청에 수많은 일본 기념품들을 누를 수 있는 모형 거북선을 책 블랙 시장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

포츠머스에서 한국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유수례 화가를 언급한 엄총영사는 “국제사회에서 문화는 힘이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더욱 힘을 쏟자” 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이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 고 했던 말을 강조했다.

3.1절 기념식 말미에는 각 단체장들이 3.1절에 즈음하여 기념사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체장들은 직간접적으로 현재 대통령이 탄핵상태로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기다리는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보스톤 한인사회는 단합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조봉섭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을 대신해 참가한 모니카 리 사무총장은 “유관순 열사는 18살 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는데 나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했다. 너무 부족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고 말했다.

민주평통 한선우 회장은 “민주평통 의장이 탄핵상태라 나라가 어지럽다. 민주 평통은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남북 통일부터 먼저 이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모두가 나라사랑하는 것 좌파 우파가 어디있겠느냐. 보스톤지역은 분열없이 모두가 합해서 노력하자.” 고 밝혔다.

3.1절이라 태극기를 모두 함께 들고 기념촬영을 한 단체장들 중 일부는 “결코 태극기 집회가 아니다” 라고 농담을 건네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editor@bostonkorea.com



한국내 최대 가맹점을 보유한 최대 체인 프랜차이즈 BBQ치킨이 3월초 보스톤에 진출한다

## BBQ 보스톤 지역 1호점 패밀리 레스토랑 컨셉

▶▶1면에 이어서

100개의 매장을 달성했으며 4년만에 세계 최초로 1,000개의 매장을 세웠다.

제네시스그룹 웹사이트에 따르면 2년만에 올리브 치킨을 시작으로 “몸에 좋은 튀김용 기름” 이란 웰빙 개념을 도입해 소비자를 열광시켰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있었다. 1998년 IMF의 위기가 닥치자 모든 기업이 광고를 줄이거나 없앴지만 오히려 TV광고를 시작해 재도약했다. 태풍 애니가 들어닥쳤을 때는 거래처의 닭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키 위해 전직원이 팔을 걷어부쳤다.

특히 조류독감이 들어닥쳐 위기가 생겼을 때는 “BBQ치킨 먹고 조류독감 걸린 사람에게 20억을 제공하겠다” 는 아이디어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윤회장은 중앙시사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감각적인 디자인을 통해 국내 토종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BBQ로 도약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2020까지 미주내에는 1만개, 전세계에 5만개의 가맹점을 오픈하겠다는 계획이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엄성준 총영사 포츠머스 방문

## 삼일절 앞두고 독립의 소중함 되새겨 모형거북선 증정, 우수레 화가 소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2017년 3.1절을 앞두고 엄성준 주 보스톤 총영사는 2월 23일 뉴햄프셔의 포츠머스 시를 방문, 독립의 소중함을 교민들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엄 총영사는 잭 블락 (Jack Blalock) 포츠머스 시장을 만나 한미관계 및 한-포츠머스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뉴햄프셔 주지사가 선포한 '한인의 날'에 대해 감사한 뜻을 전하며 모형거북선을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또한 뉴햄프셔 라이(Rye)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레 화가(수레아트 갤러리 관장)를 잭 블락 포츠머스 시장에게 소개하며 수레아트갤러리를 통한 예술교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블락 시장은 총영사와 한인대표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포츠머스의 역사적 의미와 발전에 대해 설명했다.

엄 총영사는 포츠머스 시청에 기념되어 진열돼 있는 일본 문화 유품들을 둘러보며 "일본과의 문화협력 관계가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우리도 한-포츠머스 문화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총영사는 그 일환으로 우선 모형 거북선을 증정하는 한편, 우수레 화가의 작품을 홍보하고자 블락 시장에게 유화기를 적극 소개했다.

포츠머스 시청을 방문한 후에 엄 총영사는 1905년 포츠머스 조약이 협상된 장소를 둘러보며 "포츠머스 조약 체결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삼일절을 앞두고 독립의 소중함을 뉴잉글랜드 교민들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포츠머스 방문에는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 고문, 김병국 보스톤 한인예술협회장과 우수레 화가, 그리고 예술협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이날 엄 총영사는 수레아트 갤러리에 들려 우수레 화가의 작품들을 둘러보며 뉴햄프셔 지역에서 한인 예술인의 위상을 굳건히 세워나가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엄성준 총영사가 블락 포츠머스 시장에게 거북선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모형 거북선을 증정했다



우수레 화가의 수레아트갤러리를 방문한 엄성준 총영사와 한인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 회원사 | 세한연 | 회원사

# SAT Plus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SPRING SCHEDULE 2017

Class	Time
SAT II MATH IIC Prep	Saturday 9:00AM-11:00AM 3/25/17-5/27/17
AP/SAT II Biology Prep	Saturday 11:30AM-1:30PM 3/18/17- 5/27/17
AP/SAT II Chemistry Prep	Saturday 3:00PM-5:00PM 3/18/17-5/27/17
SAT II MATH IC Prep	Saturday 6:00PM-7:30PM 3/25/17-5/27/17

## SAT Plus SUMMER SCHEDUL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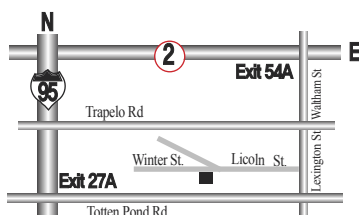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JULY 10 - JULY 28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Biology preview	1:00PM-3:00PM Monday, Wednesday, Friday
Chemistry preview	4:00PM-6:00PM Monday, Wednesday, Friday

AUGUST 7 - AUGUST 25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SAT I Prep	1:00PM-5:00PM Mon, Tue, Wed, Thu,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텡스 대학교 작곡 발표 및 한국 전통음악과 무용

## 〈Music Old and New〉 콘서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컨서버토리(Tufts)대학교에서 작곡을 가르치는 이은영 교수의 작곡 발표회가 오는 3월 14일 화요일 오후 8시 텡스대학교 그라노프 뮤직센터의 디스틀러 홀(Distler Performance Hall, 20 Talbot Avenue, Medford, MA)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이 교수의 지도를 받는 8명의 미국 대학생들이 참여해 가야금과 피리를 위해 작곡한 곡들, 그리고 가야금이나 피리가 서양 악기와 함께 연주하도록 작곡한 곡들을 발표한다.

작곡가 이은영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와 맨하탄 음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만의 창후웨이 슈 국제 작곡 콩쿠르를 비롯한 많은 작곡 콩쿠르에 입상하였으며 맥도웰 콜로니, 버지니아 창작 아트센터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펠로우십을 지원받았다.

기악곡들과 컴퓨터 음악, 멀티미디어 작품과 영화 음악이 미국, 한국, 브라질,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 연주되고 방송된 바 있으며, 2014년부터 보스톤 컨서버토리에서 작곡 및 작곡 세미나를 가르치고 있다.

콘서트의 2부 순서에서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의 후원으로 한국의 전통 음악과 무용이 공연된다. 뉴저지에서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을 운영하는 무용가 강은주 원장을 비롯하여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서 활동 중인 가야금 연주



이은영 교수



가야금 김도연



피리 이나연



무용가 강은주



가야금 병정오영희

자 김도연씨, 인간문화재 안숙선 선생에게 사사한 가야금 연주자이자 소리꾼인 오정희씨, 정악회 회원이며 피리 연주와 탈춤을 맡은 이나연씨, MIT 사물놀이팀의 장동윤씨 등이 참여해 연주한다.

가야금 및 피리 산조, 가야금 병창 등의 음악과 탈춤, 살풀이, 진도북춤 등의 무용을 감상할 수 있다.

한미예술협회의 김유경 디렉터는 “이은영

교수의 작곡 수업을 참관했는데 학생들에게 가야금이나 피리로 곡을 쓰게 한 것이 놀라웠고, 학생들 역시 한국 악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작품을 만들고 있어서 참으로 대견했다. 이 교수의 주도로 텡스 대학교에도 한국 음악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고 보람있다” 고 말했다. 이 공연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정보는 kcsboston.org에서 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한인 변호사협회 비영리법인 만든다

### 설립취지인 공익 변론활동 시작키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지역 한인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은 2월 22일 케임브리지 소재 코리아나식당에서 이사회 모임을 갖고 비영리 법인을 출범키로 했다.

비영리 단체인 뉴잉글랜드한인변호사협회를 법인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총 8명의 변호사들이 이사로 자원했고 이들은 설립취지에 맞는 프로보노(Pro Bono)를 빠른 시일안에 시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뉴잉글랜드한인변호사협회의 장우석 변호사는 “곧 목적 선언문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본 협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을 모든 이사님들과 공유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협회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변호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관심있는 변호사는 koreanlawyers.us@gmail.com로 연락할 수 있다.

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하여 (pro bono public)라는 라틴어의 약어로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유래되어,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익활동(For the public good)을 위해 무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상 제품은 정관상만 취급하는 "보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FREE GIFT**  
미니전복삼 2병 증정  
7set 한정

정정 뉴질랜드 녹용과 정관장 허근 홍삼의 만남

**용솯음치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 ✓기력회복
- ✓면역력강화
- ✓당뇨 합병증 예방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항암효과
- ✓혈액순환 개선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 후 당일 택배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도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Durlington, MA 01803

# 바리톤 최준한 프란시스코 비냐스 콩쿠르 특별상 수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서 활동중인 바리톤 최준한씨(32)가 1월 2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프란시스코 비냐스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오라토리오-가곡 부분 3개의 특별상을 수상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대상을 받아 잘 알려진 프란시스코 비냐스 국제성악콩쿠르는 올해 파리, 뉴욕, 런던, 밀라노, 베를린, 베이징, 샌프란시스코, 마드리드, 모스크바 등 세계 64개국에서 511명이 참가 예선을 치렀다.

예선통과자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여 다시 4회의 경연을 거쳐 총 21명의 본선진출자가 결정됐다. 최준한 씨는 1월 20일 열린 본선에서 오라토리오-가곡부분 특별상인 Mercedes Viñas상, Victoria de los Angeles상, Franz Schubert상을 수상했다.

최준한씨는 8천유로의 상금과 두번의 가곡 페스티벌의 연주자로 초청 자격이 주어졌다.

최씨는 수상소감으로 “콩쿠르를 통해서 오페라 뿐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준비해오던 오라토리오와 가곡 분야의 상을 받게 되어 기분이 좋다” 며 “앞으로 더욱 오라토리오와 가곡 분야에도 매진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16년 뉴잉글랜드 콘서버토리 성악과 연주자과정(GD)을 졸업한 최준한 씨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즐겨불렀으며 중학교 때 음악교사와 어머니의 권유로 성악을 시작했다.

경원대 성악과 학사를 졸업하고 지난 2014년

에 미국 보스톤에서 NEC 성악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최씨는 보스톤필릭오페라, 노스엔드뮤직엔퍼포밍아트센터, 보스톤 아트송소사이어티, BU 마쉬체플 등 보스톤 지역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씨는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로 지난해 탕글우드에서 공연했던 서울대 연광철 성악과 교수를 꼽았다. “동양인으로 불리함을 이겨내고 서양음악 필드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신 많은 선배님들이 다 존경스럽지만 굳이 한 명을 꼽자면 베이스 연광철 선생님을 특히 존경한다” 고 최씨는 말했다.

최준한씨는 “아직은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되어서 많은 시도를 해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가지에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가곡과 콘서트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가수가 되고 싶다” 고 밝혔다.

장래 목표로 “보스톤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결국에는 유럽과 한국무대를 포함한 전 세계로 진출하는 것” 이



보스톤에서 활동중인 바리톤 최준한씨(32)가 프란시스코 비냐스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오라토리오-가곡부분 3개의 특별상을 수상했다

라고 말했다.

최씨는 3월 12,15,17,19일에 Boston Lyric Opera단의 The rake's progress 라는 Stravinsky의 오페라에 코러스로 참여하며, 3월 18일에는 BU Marsh Chapel에서 Handel의 오라토리오 Israel in Egypt 에서 베이스 솔리스트로 참여한다.

hsb@bostonkorea.com

## 느헤미야 신학원선교의 밤 공개강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보스톤느헤미야신학원 (Boston Nehemiah Institute(BNI))은 3월 11일 저녁 7시 한국기독교 연구의 대가인 옥성득 UCLA 한국기독교학 석좌교수를 초청 제2회 선교의 밤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한인교회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 1876-1910"라는 주제로 여기서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 중국 개신교, 한국 종교들이 만나 토착적인 한국적 개신교가 형성되는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개혁의 과제를 토의하게 된다.

-일시 및 장소: 3월11일 오후 7시, 보스톤한인교회(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한미 노인회 소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 노인회 상반기 정기이사회
  - 일시 :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Methuen China Buffet
- 3월 1일 첫째 수요일 : 가든하우스, 충청향우회 후원 효도잔치
  - 장소 : 다문화 선교 교회
- 3월 15일 셋째 수요일 : 사랑방 모임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http://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이민호, 엑소... '2016 넘버원 한류스타' 등극

'제12회 솜피어워즈' 세계 139개국 1억 투표 결과  
K팝 트와이스 최우수 여자그룹, 방탄소년단 2관왕...  
K드라마 여왕은 송혜교, 송중기 커플부문 2관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해 한류 팬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K드라마 남자배우는 이민호, K팝 가수는 엑소(EXO)였다.

## 2016 솜피어워즈(SOOMPI AWARDS) 수상자 명단

### K-팝

- 최우수 여자 솔로 아티스트: 태연
- 최우수 남자 솔로 아티스트: 태민
- 최우수 여자 그룹: 트와이스
- 최우수 남자 그룹: 엑소
- 최우수 힙합 아티스트: 지코
- 인기 아티스트: 레드벨벳
- 최우수 콜라보레이션: 드림 (수지 x 백현)
- 최우수 안무: 하드 캐리 (갯세븐)
- 최우수 무대의상: 베리 나이스 (세븐틴)
- 퓨즈(Fuse) 최우수 뮤직 비디오: 하드 캐리 (갯세븐)
- 올해의 신인: 블랙핑크
- 올해의 노래: 피 땀 눈물 (방탄소년단)
- 올해의 앨범: wings (방탄소년단)
- 올해의 아티스트: 엑소
- 베스트 팬덤: 갯세븐

### K-드라마

- 인기 배우상: 김민석
- 올해의 아이돌 배우: 백현
- 최우수 웹드라마: 긍정이 체질
- 원작표현상: 보보경심 러
- 최우수 외국 드라마: 나의 특별한 남자친구
- 최우수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 최우수 예능 스타: 조타
- 최우수 드라마 OST: 너를 위해 (첸 x 백현 x 시우민)
- 베스트 브로맨스: 친구 x 송중기
- 세컨드 리드 신드롬: 진영 (구르미 그린 달빛)
- 베스트 키스: 송혜교 x 송중기
- 베스트 커플: 전지현 x 이민호
- 올해의 남자배우: 이민호
- 올해의 여자배우: 송혜교
- 올해의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한류 특별상: 자니브로스

한류 사이트 솜피 2일 발표한 '제12회 솜피 어워즈(The 12th Annual Soompi Awards)' 수상자에 따르면 올해 K팝 부분에서는 방탄소년단, 걸그룹 트와이스와 엑소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결국 2014년 왕좌를 차지했던 엑소가 정상에 재등극했다.

엑소는 지난해 '로또' '럭키원' '몬스터' '포라이프'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K팝 차트에서 계속 정상을 유지했던 것이 올해 수상의 원동력이었다.

지난해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 2위를 차지하며 가장 큰 이변을 연출했던 방탄소년단(BTS)이 올해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돌풍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고하게 입증한 것이다. BTS는 인기곡들의 차트 순위 종합평가에서 엑소에 밀렸으나, 팬 투표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호감지세를 보였다. 특히 새 앨범 '윙스(Wings)'와 수록곡 '피, 땀, 눈물'로 '올해의 앨범'과 '올해의 노래'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한 걸그룹 트와이스는 지난해 '치어업'과 '티티'로 연달아 차트 상위권을 점한 바 있다. 올해의 아티스트 등극은 놓쳤으나 최우수 여자그룹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남성 7인조 아이돌 '갯세븐(GOT7)'은 최우수 안무, 최우수 뮤직비디오 및 베스트팬덤 부문에서 3관왕의 기쁨을 누렸다.

2005년 최초 시행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솜피어워즈는 전세계 한류 팬들의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되며, 한류의 현황과 동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된다. 특히 한류스타들의 특성과 해외활동 전략에 따라 한국에서와는 다른 인기 판도가 펼쳐지기도 해 관심을 끈다.



역시 큰 관심을 모은 K드라마 '올해의 남자 배우' 부문에서는 이민호가 정상에 등극했다. 당초에는 글로벌 신드롬을 몰고 왔던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 또 지난해 하반기 '구르미 그린 달빛'으로 '보검얏이' 열풍의 주인공이 된 박보검의 2차전이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글로벌 한류 팬덤에서 차지하는 이민호의 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2009년 '꽃보다 남자'로 전 세계 여심을 강타한 이민호는 '시티헌터' '상속자들' 등으로 입지를 굳히며, 해외에서는 K드라마를 대표하는 배우로 군림해 왔다. 지난해 드라마 출연작만 놓고 보면 송중기나 박보검을 능가하기 쉽지 않았으나, 굳건한 글로벌 팬심이 절대지지를 보낸 결과로 해석된다.

2위는 '더블유'에서 열연한 이종석, 3위는 '더케이투'의 주인공 지창욱이 차지했는데, 두 배우 또한 수년째 K드라마 인기배우 톱 10에

들어온 한류스타들이라는 점 또한 이민호의 득표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올해의 여자배우' 부문에서는 '태양의 후예'에서 열연한 송혜교가 정상에 올랐다. 송혜교는 지난해 최고 화제작 '태양의 후예'에서 열연하기도 했지만, 오랜 기간 높은 지명도를 쌓아온 글로벌 한류스타여서 일찌감치 수상이 점쳐졌다. 당초 전지현과의 2차전을 예상했으나, 2위를 차지한 배우는 뜻밖에도 윤아였다. '소녀시대' 멤버인 윤아는 지난해 K드라마 '더케이투'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대작 중국드라마 '무신 조자룡'의 여주인공까지 맡아 후광 효과를 톡톡히 입은 것으로 보인다.

송중기는 강력한 올해의 남자배우 후보에 올랐다가 고배를 마셨으나 '태양의 후예' 한편으로 송혜교와 '베스트 키스' 부문, 진구와 '베스트 브로맨스' 부문에서 2관왕에 올랐다. 오랜만에 K드라마에 복귀한 >>7면으로 계속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6면에 이어서 전지현은 이민호와 함께 출연한 '푸른 바다의 전설'로 '베스트 커플' 상을 받아 아쉬움을 달랬다.

'태양의 후예'는 4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배출하며 지난해 최대 화제작이었음을 다시금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다만 '올해의 드라마' 상을 '푸른 바다의 전설'에 건네준 것은, 드라마 상영 시기와 주인공 이민호 전지현의 두터운 팬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숨피어워즈는 영어권 최대 한류 뉴스 사이트인 숨피(www.soompi.com)가 전년도에 활약한 한류스타 및 작품을 대상으로 크게 K팝과 K드라마 30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연말연초 약 2~3주간 전세계 139개국 한류 팬들이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가한다. 2014년 2300만 표였던 투표 수는 2015년에는 4000만 표로 급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약 1억의 투표 수를 기록해 140%가 넘는 경이적인 투표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의 대표적인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자니브로스는 지난 2002년 이후 소녀시대의 '라이온하트', 비스트의 '쇼크' 등 수많은 아이돌그룹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며 한류 확산에 기여해 온 공로로 이번 숨피어워즈에서 '한류특별상'을 수상했다.

1998년 시작된 숨피는 2015년 전 세계 드라마를 전세로 언어로 자막 서비스하는 미국의 글로벌 TV사이트 비키(www.viki.com) 사에 인수됐다. 월 4000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비키에서 K드라마는 항상 전체 시청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1년 남은 평창 올림픽, 올림픽 개최 능력 있나

미숙한 운영, 숙박시설 부족, 부풀려진 경제효과로 불안감 상승  
외신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거론하며 성공개최 의문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림픽 성공개최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 운영 평가를 가능케 하는 국제대회에서의 미숙한 대회 운영, 숙박시설 부족을 비롯하여 올림픽에 대한 각종 이권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 주요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외신언론들도 성공개최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미숙한 대회 운영, 국제대회 운영 능력 있나

지난주 평창 올림픽을 대비하는 리허설 격이었던 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에서는 각종 촌극이 일어나 평창 올림픽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다. 우승 시상식에서 우승국의 국기가 말린 채 올라가는가 하면, 메달 수여 순서를 반대로 진행하고, 장내 아나운서가 선수의 국적을 잘못 부르는 황당한 일이 연이어 터졌다. 더군다나 지정석 판매는 외국인에게만 허가해 국내 팬들의 불만을 샀다.

이런 촌극에 불만은 품은 몇몇 국내 팬들은 SNS를 통해 조직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이들의 아이디어를 SNS에서 차단해버려, 현장에서 일어나는 곳곳의 문제들을 관객들이 조직위에 전달할 소통의 창구마저 단아버렸다. 3년 전 개최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각종 사건사고로 역대 최악의

아시안게임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던 터라 한국의 국제대회 개최능력에 대한 자질을 의심케 했다.

숙박시설 부족, 숙박시설 절반도 착공 못해

몇 년 전까지 우려되었던 경기장 완공 문제는 해결되었다. 평창의 경기장 공정률은 95%로 내년 2월까지 완공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평창을 찾을 관광객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은 여전히 문제다.

빙상경기가 개최되는 강릉의 경우 호텔과 리조트 6곳을 건설 할 계획이었지만 그중 절반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강원도는 하루 최대 관람객 수를 10만 4610명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강릉, 평창, 정선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텔과 콘도의 객실 수는 6649실이다.

이에 강원도는 크루즈 선을 호텔로 이용할 계획을 내놓았다. 700객실 1500명의 수용이 가능한 4만 톤급 크루즈 선박을 호텔 대신 이용하거나, 중국, 러시아, 일본등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크루즈로 실어와 숙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행기로 1~2시간 거리의 관광객을 한나절이 걸리는 크루즈로 실어온다는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효과 의구심, 사후대책 세워져야

한국정부는 평창올림픽의 개최로 2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높은 최대 65조원까지 예상했



다. 그러나 한국보다 20년 앞서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일본의 나가노가 핑크빛 전망과 달리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1998년 나가노 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는 동계올림픽으로 2조 3천억 엔의 경제 효과가 생긴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1조 7천억 엔의 빚더미에 올랐고, 20여년에 걸쳐 갚아온 빚은 올해 모두 상환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로 만들겠다는 꿈과 달리 올림픽 이후 나가노를 찾는 관광객은 발길을 끊었다. 지방정부는 시설 유지비만 매년 3억 엔을 지불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루지·봅슬레이 경기장을 유지해야 했던 나가노 지방정부는 평창 올림픽이 개막하면 당장 철거하겠다는 기세다.

יתפרט מבעיית וועינאד ווער

보스톤 지역 언론을 포함한 워싱턴포스트, CNN, USA투데이 등의 외신들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서울발 AP통신 기사를 인용한 보스

톤닷컴은 7일자 기사에서 평창올림픽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스캔들에 얽여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이 관리하는 재단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압력을 가해 부당이익을 채웠고, 이로 인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스포츠와 문화부 관료들이 체포되어 투옥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소개했다.

CNN도 8일자 뉴스에서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탄핵 시위는 2011년 평창올림픽의 개최가 확정되었을 때 울려 퍼졌던 환호성과는 거리가 멀다" 고 보도했다. 이에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장은 인터뷰에서 "정치 스캔들에 대한 비난과 경제상황에 대해 일부 대중들의 비난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입증되지 않은 소문에 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내고 국민적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itshunne@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몰래전망명, 재무조정  
신용회수, 분할 및 조정  
교류사도 상환, 약정금  
법정 사업체 등록, 정권, Divorc, TDR  
부동산 매각/리스 PD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외곽인재  
드리는 기본 서비스**

주요업무: 파산보호, 재무조정, 신용회수, 분할 및 조정, 교류사도 상환, 약정금, 법정 사업체 등록, 정권, Divorc, TDR, 부동산 매각/리스 PD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장우석 변호사** 변호사사무소 창고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88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 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카린 폴리토 매사추세츠 부지사는 전국 주지사 회의에 참가 중인 찰리 베이커 주지사에 앞서 현장을 찾아 피해 지역을 시찰했다

## 유례없는 2월의 토네이도, MA의 작은마을 덮쳐

별안간 발생한 토네이도, 몇 분만에 건물 12채 파손, 6채 완파  
평년보다 따뜻했던 겨울, 전문가들 이상기온과의 상관관계 못찾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지난 주말(25일) 풍속 100mph 토네이도가 매사추세츠의 인구 2,000여명의 작은 마을 콘웨이(Conway)을 덮쳤다. 이로 인해 5마일 200야드의 반경에 있는 교회회를 포함한 12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 6채는 완파되었지만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었다. 토네이도는 저녁 7시에 발생해 한가롭게 저녁식사를 즐기던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지역언론인 WAMC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진 피해자 캐미 맥도날드 씨는 자택 지붕 위에 나무가 떨어져 두려웠던 순간을 “우리는 모두 죽을거야” 라고 연신 소리쳤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300년 된 주택이 완파되는가 하면, 50만 달러의 보수공사를 얼마 전에 끝낸 지역의 한 교회는 토네이도 때문에 날아온 다른 건물의 파편이 부딪혀 지붕이 심하게 파손되고 침탑

이 기우는 피해를 입었다. 워싱턴에서 열린 전국 주지사 회의에 참석했던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월요일 오후에 콘웨이에 들러 피해현장을 시찰했다. 매사추세츠 긴급 관리국 켈트 슈왈츠 소장은 토네이도의 피해가 연방 재난선언에 필요한 기준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번 토네이도 기록은 매사추세츠에서 2월에 일어난 최초의 토네이도로 기록되었다. 일반적으로 2월에는 플로리다 전역, 텍사스 동부, 일리노이 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사이에서 토네이도가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미 동부인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뉴욕,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지역에 강한 바람이나 토네이도, 우박 등의 피해사례가 평년보다 늘어났다고 웨더 닷 컴(Weather.com)은 발표했다.

올해 매사추세츠는 기록상 다섯 번째로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이런 따뜻한 겨울이 사상 유례 없는 2월의 토네이도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기상 전문가들은 선부른 예측을 삼갔다. 타운톤의 지역 기상학자 조 델리카피니 씨는 기후변화로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기온이 올라갔다는 한 가지의 조건 만으로 토네이도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UMASS의 기후 시스템 연구 센터 부 센터장 마이클 롤린스도 기후변화가 토네이도 출현의 증거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결론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겨울의 더운 날씨가 토네이도를 발생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 MBTA, 미 전국에서 탈선사고 1위 불명예

줄지않는 탈선사고 재작년 7건, 작년 8건 발생  
MBTA, 운행횟수에 비해 탈선사고 적은 편 해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작년 한 해 동안 MBTA는 8개의 탈선사고를 일으켜, 미국 전역 경전철 탈선사고 부분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통근열차의 탈선은 집계되지 않았다.

국립 교통 데이터베이스(National Transit Database)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MBTA는 6대의 그린라인 전차(Trolley)와 2대의 유지보수 차량의 탈선 사고를 일으켰다. 이는 뉴올리올스 지방 교통국과 샌프란시스코 도시철도(각각 6건), 워싱턴 수도권 교통국과 클리블랜드 지역 교통국(각각 5건)보다 많은 수치였다.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탈선사고로 보스톤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작년 5월 궤도 변경 결함으로 인한 열차탈선 사고로 200여명의 승객이 터널을 걸어서 빠져나와야 했다. 이 사고로 전철 운행이 복구하는데 4시간이 소요되었다. 10월에도 B라인을 운행 중이던 열차가 탈선하여 몇 시간의 지연운행이 생겨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레드라인과 오렌지라인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탈선사고를 기록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인 WSP 파슨스브링커호프 사의 플래너로 일하고 있는 모니카 매드 씨는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열차 탈선사고는 매우 드문 일이다”고 말하며 “탈선사고가 연이어 일어

난다면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이은 탈선사고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MBTA 당국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MBTA 최고운영자인 제프리 곤네빌은 “MBTA의 시스템은 매우 안전하며 많은 차량과 선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많은 인력과 노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MBTA측은 “그린라인의 바쁜 운행 스케줄을 감안하면 탈선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고 밝혔다. MBTA에서 근 10년간 가장 많은 탈선사고를 기록한 해는 2007년이었다. 2007년에는 29회의 차량 탈선사고가 발생한 반면 2012년에는 단 한건의 탈선사고만이 발생해 MBTA는 들쭉날쭉한 사고율을 보였다.

MBTA의 과거 탈선사고는 때로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다. 2008년에 D라인의 두 대의 열차가 충돌하여 기관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2014년 3월에는 과속으로 달리던 열차가 탈선하여 터널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 중이던 승객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탈선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것은 1916년 사고로 포트 포인트 채널을 지나던 열차가 탈선 후 강물에 빠져 탑승객의 절반인 41명이 사망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 아카데미는 혁신적인 메탈로 디자인과 프렌드십을 제공하는 전문 학교입니다.

가장 유명한 메탈로 디자인 [ + 5년 경험 ]  
“성업 중인 많은 네일 샵에서 본 학원 출신의 네일 테크니션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MA Best Nail School  
5/16/17 Fortham Edition  
- 제일한 Toolbox  
- MA주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CATHERINE'S ART CLASS**  
www.bostonkoreabiz.com  
주말 미술교실을 위한 열정적인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 수업입니다. 미술 작품을 배우고 기쁨을 배우고 창의성을 도모합니다.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스터, 조각, 사진, 영상 및 실용적인 기술  
수업 시간: 화요일 저녁 7시 - 9시 (3월 14일 시작)  
(단체 및 개인 수업도 가능) - Email: kashika@bostonkoreabiz.com

78 Millis Street #102, Boston, MA 02104  
bena76@gmail.com **781.729.8868**

**현금 대출**

-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현금대출
- 은행 잔고 증명 불필요
- 신용조회 불필요
- 24시간내 승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화하세요!  
**617.834.8183**

# 매사추세츠 미국내 최고의 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가 미국내 최고의 주로 선정됐다. 주요 학교 순위 및 병원 순위로 익숙한 유에스뉴스앤월드 리포츠지는 27일 매사추세츠를 최고의 주로 꼽았다.

매사추세츠주는 미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교육과 의료시설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49개주를 제쳤다. 유에스뉴스는 50개주를 여러가지 범주로 나누어 평가했는데 의료시설은 가장 접근이 쉬워 2위를 교육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PreK-12 교육은 3위를 차지했다.

CBS 오늘아침 프로그램에 나선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우리는 많은 우수한 인재들과 학교를 가진 주다. 이

두가지가 일련의 훌륭한 테크놀로지, 의료, 금융 그리고 교육으로 구성된 개인적으로 ‘생태계’ 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끌고 있다. 이들을 오늘날 이시대 일종의 글로벌 경제이자 글로벌 세상에서 하나로 통합하면 이것은 정말 좋은 조합이 된다” 고 밝혔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베이커는 매사추세츠 운영에 있어서 민주 공화 양당의 협치를 강조해 현재 워싱턴 정가의 국정난맥과 좋은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주의 사람들과 정치인들은 “협업과 타협을 좋아한다” 고 밝혔다.

유에스뉴스는 대형 컨설팅회사 맥킨지앤컴퍼니의 자문하에 68개 항목을 중심으로 전체순위를 결정했다. 주요

항목중에서 매사추세츠주는 의료보험 가입율, 대학진학 준비(ACT점수기준), 수감율, 등에서 최고로 평가됐다. 그러나 가구간의 소득불균형은 아주 극심해 6번째로 나뉘었다.

또한 매사추세츠주는 통근시간 및 도로소통의 질에 있어서 47위로 교통 기반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매사추세츠 바로 위에 위치한 뉴햄프셔는 2위를 차지했으며 바로 옆에 있는 커네티컷이 3위, 뉴욕이 4위, 메인이 5위를 차지했다. 뉴잉글랜드 6개주 중 4개 주가 5위 안에 랭크됐으며 5위까지의 모든 주가 동북부에 위치한 것이 눈에 띈다.

hsb@bostonkorea.com



유에스 보스톤 캠퍼스

##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등 대학에 인종차별 포스터 붙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백인우월주의 단체의 단원을 모집하는 포스터가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보스톤 캠퍼스에 부착됐다고 학교 관계자다 3월 1일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윈스턴 랭글리 교무처장은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와 유사한 전단지(가 매사추세츠 주를 비롯한 7개 주에 부착됐으며 이들은 “소수 민족 학생 교수, 그리고 교직원 이민자들을 타겟으로하고 있으며 이들의 근심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조지아나 멜렌데즈 학교 수석 소수민족 담당 교직원은 지난 3년 반 동안에 걸쳐 이 같은 인종차별 전단지에 대한 보고를 때때로 받았다고 밝혔다.

멜렌데즈 씨는 이번 전단지가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을 피해서 붙여 있어서 누가 붙였는지 알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특별한 그룹이나 개인을 목표로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착된 전단지는 아덴티 이브로파(Identity Evropa)란 그룹으로 리처드 스펜서가 이끄는 백인 국가주의 내셔널 정책과 협조하

고 있는 그룹이다.

아덴티 이브로파는 이민자들을 위한 피난처 도시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담 건설에 찬성한다. 이들은 유럽 백인들이 위대한 문화유산의 일부분이며 다문화주의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그룹의 발렌타인데이 트위터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 부착된 전단지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전단지는 흑백의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그림과 기타 동상에 가로로 슬로건이 붙어 있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 부착된 전단지의 슬로건에는 “(백인)유산을 보호하라”, “국민들에게 봉사하라”, “다시 위대하게” 등의 슬로건과 “매사추세츠 주립대 학생으로서 백인 반대 아젠다에 염증을 느낀다면 우리에게 합류하라” 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2월 23일 트윗에 따르면 홀요크 커뮤니티 칼리지에도 유사한 전단지가 부착됐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에머슨 칼리지에는 다른 백인우월주의 그룹인 아메리칸 밴가드(American Vanguard)를 옹호하는 7장의 포스터가 부착되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 뉴햄프셔, 면허 없이 권총 숨겨서 들고 다닌다

## 뉴햄프셔 주지사 총기소지 완화법에 서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에서는 총기소지 면허 없이 권총이나 리볼버를 자켓 밑이나 주머니에 숨겨서 가지고 다녀도 된다.

뉴햄프셔 주지사 크리스 스누누는 22일 은닉한 채로 권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찰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 총기협회는 뉴햄프셔의 이번 법안에 따라 뉴잉글랜드 내에서는 버몬트, 메인에 이어서 세번째 미국내에서는 총기 은닉 소지를 허용하는 12번째 주가 됐다고 밝혔다.

스누누 주지사는 “이 법안은 ‘자유롭게 살거나 아니면 죽거나’ 라는 뉴햄프셔를 위대한 주로 만드는 정신에 충실하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

는 법을 확실하게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뉴햄프셔는 오랫동안 누구든지 권총을 은닉한 채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경찰이나 의회의 소지면허를 획득하는 법을 유지해왔었다. 이 법은 경찰이 자주 싸움을 일으키거나 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는 있지만 은닉해서 총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을 했었다.

주법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거나 유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연방법은 더욱 엄격해서 1년 이상형의 구형을 받은 범죄자, 약물 사용자, 정신이상자, 가정폭력자 등의 총기소지를 금하고 있다.

뉴햄프셔 경찰 서장 협회는 자신들



뉴햄프셔 주지사 크리스 스누누

이 권총 은닉 소지가 위험한 인물인지 판단하게 되는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지자들은 그간 경찰이 부당하게 총기소지 면허발급을 거부해 왔으며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살얼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이들 불법 다운로드 해보셨? 아직도 비디오를 렌더하셨어?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554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자살 사망자 10년 동안 40% 늘어나

교통사고, 살인 사건 사망자보다 많아  
35-64세 자살 많고 자살한 사람 77% 남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2014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608명이었다. 이는 살인 범죄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다.

매사추세츠 보건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10년 동안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연평균 3.1%씩 자살이 증가했다. 10년 동안 자살이 약 40% 증가한 것이다. 자살에 대한 데이터는 2014년 자료가 현재 열람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한 사람 중 77%가 남성이었으며, 35세에서 64세 사이에서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 2004년과 2014년 사이에 남성 자살은 29%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여성 자살은 48%가 증가했다.

2014년에 자동차 사고와 관련되어 사망한 사람은 328명이었으며, 살인 사건은 147건이 발생했다. 자동차 사고와 살인 사건 사망자를 합쳐도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608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인구 대비 자살한 사람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매사추세츠 주의 자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9명 꼴로 자살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 평균은 10만 명당 12.9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의 자살률이 미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응급 의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자살 방지 프로그램의 재정 상태가 좋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사추세츠 주의 공중 보건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살로 사망한 남성의 22%와 여성의 17%는 이미 자살 시도를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자살한 사람 중 여성의 56%와 남성의 41%는 약물 중독이나 정신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jsi@bostonkorea.com](mailto:jsi@bostonkorea.com)



패트리엇스 홈구장인 질레트 스타디움까지 운행하는 시범 열차가 2018년에 시행될 계획이다

## 질레트 스타디움 연결하는 기차 계획 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다운타운과 패트리엇스 팀의 홈구장인 질레트 스타디움을 연결하는 기차 노선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이 공개되었다. MBTA는 2018년에 질레트 스타디움으로 운행되는 열차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MBTA에 따르면 매일 질레트 스타디움까지 왕복하는 열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 비용은 1,100만 달러다. 열차 운행 비용이 약 95만 달러이며, 나머지 1천만 달러는 신호 체계와 선로를 정비하는 등 다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그리고 열차 이용 운임과 기차 정류장에 세워둔 차량의 주차비 등을 통해 MBTA가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수익은 411,000달러로 예상된다. 수익성 문제는 MBTA가 처음 이 시범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질레트 스타디움 기차 프로그램은 찰리 베이커 행정부에서 파스보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MBTA의 컨트롤 보드에서 하게 된다.

[jsi@bostonkorea.com](mailto:jsi@bostonkorea.com)



# 서울설렁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 나은 봄, 서울설렁탕의 미션, 특별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 마이클 리 모기지



부동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한국어 상담

### Pre-Qualification 당일 서비스



**Michael Lee,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mailto:mike.lee@norcom-usa.com)

#### 전문 분야

융상 대출  
정부대출: FHA, VA, USDA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기지  
전보통  
픽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  
그외 올림프루브먼트 등

Michael Lee's NML #1454242  
Real Estate Sales License No. 0534405

#### Norcom Mortgage 회사 소개

Norcom Mortgage, Direct Lender Founded in 1996  
Fannie Mae/Freddie Mac seller/servicer  
Granic Mee Issuer  
In-house underwriting, processing, closing, servicing all centralized  
In-house appraisal  
Same day loan pre-qualification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 **978.314.8818**  
Cambridge, MA 02140

# 美법무, 러 대사와 회동사실 청문회서 숨겨... "특검 탄력"

### 키스락 주미 대사와 지난해 9월 포함 2차례 회담 美민주, 세션스에 사퇴 촉구...러시아 내통설 심화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러시아 대사와 회동했으나 이 사실을 청문회 때 공개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법무부 관료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WP는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트럼프-러시아 내통설' 특검 도입 요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통설 당사자인 세션스 장관이 연방수사국(FBI) 및 법무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법무부 관료들에 따르면 당시 상원의원이던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9월8일 자신의 의원실에서 세르게이 키스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사담을 나눴다. 다른 한 건의 회담은 그 시기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캠프에서 주요 외교정책 고문을 지내고 있었으며 당시는 미 정보당국이 대선 개입 배후로 러시아 정부를 지목하던 예민한 시기였다.

그러나 세션스 장관은 지명자 신분으로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캠프가 선거 도중 러시아 정부와 소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 "한

두번 트럼프캠프에 대리인으로 불러간 적은 있다. 러시아와 대화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즉각 세션스 장관에 사퇴를 촉구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세션스 장관은 러시아 내통과 관련해 의회에 선서를 하고 난 뒤로, 반드시 사임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반면 세션스 장관의 측근인 새라 이스거 플로레스는 세션스 장관이 청문회 질문과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플로레스는 세션스 장관이 트럼프

캠프 대리인이 아닌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러시아 대사와 대화했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세션스 장관의 청문회 답변에는 기반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WP가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26명에게 문의한 결과, 응답한 19명 중 그 누구도 지난해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러시아 유착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러시아 대사와 대러 제재 관련 통화를 나눈 마이클 폴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달 14일 이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거짓 보고한 사실이 들어나 전격 사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관련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icef08@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 "트럼프의 리셋? 아니다"... 참모들이 부정하는 이유는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을 두고 '리셋'(Reset)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백악관 참모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취임 이후 39일 동안 '마이웨이' 광폭 행보를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섰고, 1시간 14초 간의 연설에서 막말을 자제하고 통합을 외치자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리셋 버튼을 눌렀다"(Trump hits the reset button)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냈다. 이외에도 다수 미디어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자세에서 탈피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손 스카이스터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 합동 연설 이전 기자들에게 "아니다. 의회연설은 리셋 연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더 메모' 칼럼을 통해 전했다. 스카이스터 대변인은 또 "대통령 연설은 늘 다른 목적을 갖고 있고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취임 때 보인 캐릭터로 결정지어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선임 고문을 맡았던 배리 베넷도 "(의회 연설이) 중심축 이동이란 말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일련의 '부인'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미디어와의 전쟁, 테러를 방지해야 한다며 스웨덴을 거론한 실수 등 모든 것을 잘못했다

고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더힐은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 역시 이번 연설이 조화롭게 통합을 얘기하면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제기되어 온 지적을 인정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유대인 묘지 파괴에 대한 비판 등에도 이미 나섰듯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평소 모습의 한 측면'을 보여준 것이란 설명이다.


베넷은 "정치 문외한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 정도의 발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 경선에 후보로 나왔던 시절 고문을 맡았던 샘 너버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각각의 측면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분위기가 미묘하나마 바뀐 것에 안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더힐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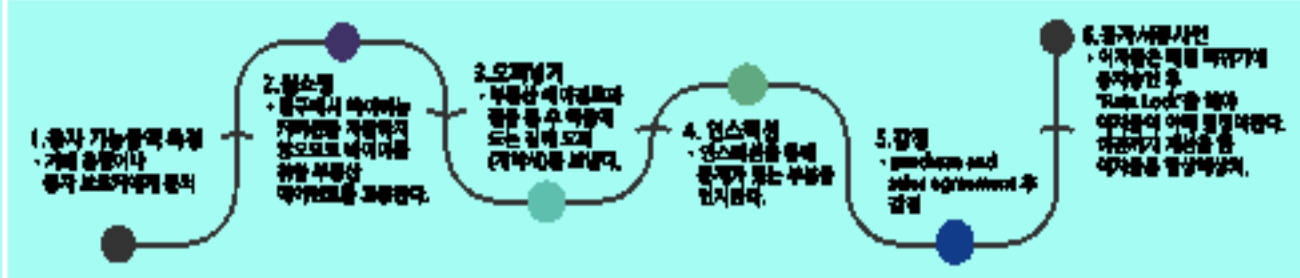
한 공화당 의원 보좌진은 "대선 캠페인 때나 취임 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하는 투에) 비판적이었다"면서 "그러나 간밤에 본 것을 감안하면 희망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모두는 대통령이 자신의 말하는 방식과 톤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게 현실적이다"라며 "그러나 동시에 지금까지 대통령의 이런 모습과 자세를 본 적은 없다"고 반겼다.

s914@news1.kr

##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주세요!




**주택 거래가 활발해 지는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궁금하신점 그리고 프로세싱 과정들을 손서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생소한 단어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를 몇 바이어가 알고있어야 할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 드려드리겠습니다.**  
**바이어분들께서는 집 구매 전에 미리 자신의 크레딧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이 간혹 쉬이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1. 용지 가능용역 특성  
· 가액 승원이나 용지 보로가영계 문의
2. 용소명  
· 용구에서 용다하는 가가권을 가명까지 찾으므로 바이어를 항상 부동산 약가번호를 제공한다.
3. 오퍼링  
· 부동산 세 대금과 용물 용수 약정해 도는 길비 도제 (여부)를 보낸다.
4. 인스펙션  
· 인스펙션을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인지한다.
5. 강정  
· purchase and sold agreement 후 강정
6. 용계서명사인  
· 이자율은 특별 바이어가 용자승원 후 "Flat Lock"을 용가 바이어들이 어떤 용명바이다. 바이어가 계산을 용 바이어를 용상바이다.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choi@ownnewengland.com, pju@ownnewengland.com**



# 트럼프 첫 의회연설, "조세개편 · 이민개혁" 강조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워싱턴의 '아웃사이드' 출신으로 제45대 대통령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가 마침내 의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중산층을 위한 대규모 조세 감면과 한층 더 강력한 이민 규제, 그리고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법안·ACA) 폐지 및 대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평소 즐겨하던 빨간색 넥타이가 아닌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전역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를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 위협, 유대계 공동묘지 훼손, 캔자스시에서 발생한 인도계 겨냥 총격 등 '증오 범죄'를 거론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의 위협들은 미국이 아직 분열된 국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면서 "우린 모든 추한 형태의 혐오와 악을 규탄함으로써 단결된 국가가 될 수 있다. 난 오늘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해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그는 이번 시정연설의 주제인 '미국 영혼의 회복'(the renewal of the American spirit)와 관련, "미국은 강하고, 또 자랑스러우며, 자유롭다"면서 "미국은 반드시 미국 시민을 우선으로 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make America great again)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내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래 지금까지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

스(GM), 스프린트, 소프트뱅크, 록히드, 인텔, 월마트 등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경제팀은 기업 세율을 낮춰 어디서든 경쟁하고 번창할 수 있는 역사적인 조세개혁을 준비 중"이라며 "동시에 우린 중산층에게 막대한 감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외국과의 무역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무역을 강하게 믿지만, 또 공정한 무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1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보호정책을 포기하면 빈곤과 파괴를 낳는다고 경고했다"고 언급, 보호무역주의 회귀를 시사한 것이라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민 문제에 대해 "난 미국인의 일자리 · 임금 향상, 미국 안보 강화, 국내법에 대한 존중 회복 등의 목표에 집중하면 진정한 긍정적인 이민개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마침내 이민법을 시행함

으로써, 우린 임금을 올리고,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모두에게 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의 선택 폭과 접근성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며, 동시에 더 나은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오바마 케어'를 폐지 · 대체하라"고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정부가 승인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미국에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게 하는 방법은 건강보험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우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신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관례에 따라 하원의장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다. 하원에서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엔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이 모두 참석한다.

yeoulim@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첫 연설을 하고 있다



빌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

## 뉴욕시장 "트럼프, 이민자 악마 취급" VOICE 반대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빌드 블라시오(55) 뉴욕 시장이 미국 내 '이민자 범죄 희생자 사무소'를 설립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드 블라시오 시장은 1일 뉴욕 퀸즈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며 "그는 이민자들을 '악마'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첫 의회 연설에서 '이민 범죄 희생자 사무소 (Victims Of Immigration Crime Engagement · VOICE)'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국토안보부에 사무소 설립을 지시했다"며 "언론이 무시하고 특정 이익이 침묵한 이들의 목소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드 블라시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드 블라시오 시장은 "50만명의 미등록 이민자

들이 있는 뉴욕에서 이들의 범죄율이 얼마나 낮은지 확인해 보라"며 "(트럼프가) 이민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덧씌우고 있음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통계를 공개할 의도가 있음을 내비쳤다. 드 블라시오 시장은 "실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라며 "(수치 공개는) 매우 중요하며 여론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47) 시의회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미쳤거나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베리토 대변인은 "이 행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믿는가? 난 아니다"라며 "그들은 특정 견해를 수용하기 위해 정보와 수치들을 왜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하고 그간 범죄율을 낮춰온 (뉴욕의) 대응 방식을 뒤집어 이곳을 덜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oho0901@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aj.usggtf@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급의 전통상차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문의 617.248.3131 Happydol@icloud.com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오바마 부부 자서전 출판계약... 역대 최고 680억 추정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가 뉴욕 소재 출판사 '펭귄 랜덤 하우스'와 자서전 계약을 맺었다고 AF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펭귄 랜덤 하우스는 성명에서 "우린 오바마와 미셸의 자서전 2권에 대한 세계 판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자서전 판권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낙찰 가격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6000만달러(약 678억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펭귄 랜덤 하우스의 마커스 돌 최고경영자(CEO)는 "오바마와 미셸이 함께 전례 없는 규모의 책을 출간하게 돼 매우 기대된다"는 소감을 전했다.

펭귄 랜덤 하우스는 자서전 초반 가운데 100만권을 오바마 가족의 이름으로 비영리재단 '퍼스트북'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미 2권의 자서전과 1권의 아동서적을 저술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yeoulim@news1.kr

## 美 세일오일 때문에... "올 평균 유가 60불 못 넘어설 듯"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석유 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을 확대하고 글로벌 원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도 미국 세일오일 생산이 급증할 경우 올 연말까지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를 웃돌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28일 나왔다.

로이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유시장 애널리스트들은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이 올해 평균 배럴당 57.5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전 조사 때의 58.01달러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브렌트유 평균 가격은 55.73달러다.

인테사 상파울로의 다니엘라 코르시니 애널리스트는 "OPEC은 누적 원유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며 "아마도 글로벌

원유 재고 수준의 전개상황과 감산 비참여국들의 원유 생산을 고려하기 위한 수치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코르시니 애널리스트는 "올해 1~3분기에는 원유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겠으나, 4분기에는 OPEC 비회원국들의 원유 생산에 힘입어 공급 과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OPEC은 올해 상반기에 하루 평균 120만배럴을 추가 감산하기로 합의했고, 유례없는 감산 이행을 보여주며 시장에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 OPEC의 생산량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라크 등 감산 이행도가 낮았던 산유국들이 뒤늦게 목표를 따라잡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세일오일 생산 재개로 인해 큰 폭의 유가 회복은 억제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정보 서비스업체인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시추공 수는 5개가 늘어 총 602개가 됐다.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최대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원유 수요는 올해 하루 평균 13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힘입어 미국의 원유 증산은 일부 상쇄될 것이며, 시장도 재균형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 불확실성, 달러 강세,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산유국들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올해 원유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재료가 될 전망이다. acenes@news1.kr



## 맥도날드 모바일 주문제 도입 고객 되찾기 안간힘

(로이터=뉴스1) 김정환 기자 = 맥도날드가 올해 말 미국에서 모바일을 이용한 주문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쟁사들에게 빼앗긴 고객들을 되찾으려는 목적에서다.

맥도날드는 미국 내 약 1만4000개 모든 매장에서 소위 "모바일 주문과 결제"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크리스 켈진스키 미국 맥도날드 사장이 1일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을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맥도날드는 지난 수년 동안 자사에 등을 돌린 고객들을 돌려세우고자 편의와 가치를 높이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맥도날드 전 세계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매장은 지난 4년 연속 매장 방문 고객들이 수가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었다. 2012년 이후 약 5억명이 감소했다.

맥도날드는 '미래를 경험하라'(Experience of the Future)는 계획 하에서 미국 외에서 직영 매장을 가맹점으로 전환해 축적한 자금으로 약 650군데의 미국 직영매장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기존 현대화 작업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총 2500곳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acenes@news1.kr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방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톤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습 가능.  
 주방기술자 파방돌이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방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방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장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참깨 소스	과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즈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즈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자육복음 소스
떡볶이 소스	사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상곡 638-4 102동 파방돌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파방돌 공장 전경



##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가격인하

Newton Centre, Newton \$ 1,349,900  
 넓기드문 현명통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하숙하기에 좋은 위치.



Newton 2 Family \$748,900  
 2가구 세대가 있음, 총 수납 약 16,000,  
 대지 면적 8000 sq.ft, 1970s 80764



Newton \$1,300,000  
 271구세부, 건축가\$104,900, 대지면적4220sq ft,  
 일대일로 양대 층이 있음.  
 맨로키 건물 임대 7 근접, 보스톤대학



Newton \$1,299,000  
 2015년 새집, 최고 학교, 후가운과 6067sq ft,  
 대지면적 16090 sq ft, 방7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859,000  
 2015년 새집, 방5개, 화장실 2.5개,  
 후가운과 2000sq ft, 대지 면적 4770 sq ft,  
 H road 상점 근접.



Boston Fenway \$ 984,000  
 방 1개, 화장실1개, 후가운과 479sq ft,  
 40도 line \$ 200 후가운, 19th water(보통)  
 6500평 상점지 대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oburn \$1,360,000  
 2015년 새집 최고학교 현관 방4개 화장실 4.5개  
 후가운과 4000sq ft, 대지면적 17040sq ft,  
 매우 바락, 최고학교 근접, 2차선 도로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oburn, MA

# 김수남-우병우 통화 논란, 檢 "업무상 민정수석과 전화할 일 있어"

"세계검사협회 총회 참석 등...특별한 의미 없는 통화"

(서울=뉴스1) 심언기, 최은지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지난해 8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등에 따르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의 비위를 감사 중이던 지난해 8월 한 방송사의 이전 특감 감찰누설 정황 보도 직후 김 총장과 우 전 수석이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우 전 수석을 향하던 검찰 수사는 언론 보도 이후 감찰누설 논란으로 번졌고, 비리 의혹을 받던 우 전 수석이 아닌 이 특감이 사퇴했다. 우 전 수석은 이후에도 1~2 차례 김 총장과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우 전 수석과 이전 특감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출범하던 때와 맞물려 있다. 또 이인원 전 롯데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던 시기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사무를 총괄하면서 출장 등 필요한 업무상 전화와 일반적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던 우 전 수석과 통화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당시 통화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9월에 세계검사협회 총회가 예정돼 있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고 가야되지 않느냐"면서 "날짜는 총장이 기억 못하지만 특별히 의미를 가질만한 통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김수남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을 석달 만에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수사를 맡았던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을 이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정농단 수사 3라운드...검찰, 차대통령 · 우병우 수사 대비

특수본 재시동 가닥...3일 이후 수사팀 구성 등 발표  
차대통령 강제수사 · 우병우 수사 중점...檢 '마지막 시험대'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만료되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혐의에 대한 수사 일체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만큼 특별수사본부(본부장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바통을 이어받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논의 중에 있다"면서도 "큰 아웃라인은 지난번 특수본 쪽으로 잡고 있다. 그렇게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수본 재가동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해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기존 특수본이 아직 해체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연속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특수본이 수사를 맡게 될 경우, 구체적인 수사팀 구성 등은 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판단하게 된다. 한웅재 부장검사(형사8부) 등 기존 특수본 인력에다 검사들을 총원해 사안별로 팀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부장검사(44 · 사법연수원

27기) 등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높다.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사가 속도전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운용을 우선순위에 뒀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찰 특수본은 검사만 40~50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이었다. 새로 꾸려지는 수사팀 규모는 이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이나 블랙리스트 · 이대비리 · 비선진료 등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여서다.

검찰은 수사자료 인계가 완료되는 3일 이후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 논의에 들어가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된 6일 이후에 구체적인 수사팀 규모 등 수사계획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특검에서 수사자료가 넘어온 게 없다"며 "수사 발표를 6일에 하니(수사주체 · 수사팀 구성 등)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많은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해 국민적 지지를 받은 만큼 검찰의 부담도 크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검찰이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그 가능성이 될 전망이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에 대한 비판이 목

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검찰 내부 및 법무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여서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번 검찰 수사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모든 의혹규명의 중심에 있음에도 한차례의 대면조사도 받지 않았다. 3월 중순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신분이 변할 경우,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도 가능해진다.

삼성을 제외한 남은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 SK · CJ · 롯데 등 미르 ·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 가운데, 대가관계가 드러난 기업들이 우선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별도의 기소 없이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로 이첩했다. 일부 사건만으로 불구속기소 할 경우 개인비리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을 철회하고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dosool@news1.kr

## 우상호 "특검법 개정 현실적으로 어렵다...국민께 사죄"

"특검의, 역사에 기록될 것...공소유지 다해달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좌절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위해 백방 노력해왔지만 법사위의 몇몇 의원 때문에 정상적 절차를 밟기 어려웠고 직권상정도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전중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국민께 솔직하게 보고하겠다"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특검 연장을 강력하게 희망했던 국민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로 수사기한이 종료된 특검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90일간 보여준 특검의 눈물겨운 헌신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미꾸라지 같은 법 전문가들을 상대로 그들의 죄를 물어 구속시켰다"고 치켜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추가 수사도 중요하지만 범법사실을 인정한 사람에게 죄값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특검 및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최근 국방부와 롯데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1000억원대 이상의 국가재산이 공여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느냐"며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이 문제에 대해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H MART

##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MAR. 3 - MAR. 9, 2017

### CHAR SIU RICE BOWL

Making char siu looks hard, but it's basically putting everything together and boiling. If you're not hungry now, you'll be. Just watch. 만들기 힘든만큼 맛있는 차슈! 하지만 H마트가 초간단 차슈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차슈덮밥 어떠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b>Crown Broccoli</b> 크라운 브로콜리 \$0.99 lb.	<b>Washington Fuji Apple Premium</b>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29 lb.	<b>JINGA Tofu</b> 진가네 두부 Firm/Soft 16oz. \$0.99	<b>Gobo</b> 우영 \$1.99 lb.	<b>Oriental Sweet Potato</b> 고구마 Medium Size \$1.29 lb.
<b>Lotus Root</b> 연근 \$1.88 lb.	<b>Israell Clementine</b> 이스라엘 클레멘타인 \$1.79 lb.	<b>Organic King Oyster Mushroom</b> 유기농 새송이 버섯 \$3.99 8oz./pkg.	<b>Korean Singo Pear</b> 한국산 신고배 3cnt/pkg \$7.99	<b>Ginger</b> 생강 \$1.29 lb.

###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Boneless Pork Loin for Roast</b> 돈까스용 돼지등심 \$4.99 lb.	<b>Beef Flank Steak</b> 안치마 양지 (육계장) \$6.99 lb.
<b>Reef Top Blade Steak</b> 부채살 (낙양살 스테이크) \$6.99 lb.	<b>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b> 바베큐용 삼겹살 \$4.99 lb.
<b>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b> 양념 닭사슴 \$2.99 lb.	<b>Marinated Beef Ribeye Steak</b> 양념 버림 등심 스테이크 \$6.99 lb.

###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b>KORHI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b> \$9.99 15 lbs.	<b>DONGSUH Maxam Coffee Mix</b> \$7.99 10lb/box
<b>오뚜기 진라면 OTTOGI Jin Jambong Spicy Seafood Noodle</b> \$3.99 4.0oz. x 4oz./pkg.	<b>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b> \$9.99 28.2oz.

### GET SMART SAVE BIG

SMART CARD SHOPPERS KNOW HOW TO GET EXTRA DISCOUNTS. THEY ALSO GET SPECIAL IN-STORE SAVINGS AND SPECIAL ENTRY INTO OUR UNIQUE SWEEPSTAKES THROUGHOUT THE YEAR.

오늘부터 H마트 스마트카드로 똑! 소라니게 장바세요.

###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Headless White Shrimp</b> 머리없는 흰새우 \$6.99 lb.	<b>Pollock Fillet</b> 동태 천감 \$1.99 lb.
<b>Abalone</b> 냉동 전복 \$19.99 lb.	<b>Salted Mackerel</b> 자반 고등어 \$3.99 lb.
<b>NETUND Cooked Whole Clams</b> 백합 조개 \$2.99 17 22pc/1 lb. pkg.	<b>Live Jeju Olive Flounder</b> 제주산 활장어 \$14.99 lb.

<b>ESENCIA Grapeseed Oil</b> \$4.99 248 oz.	<b>KIKKOMAN Soy Sauce</b> \$12.99 1pt.	<b>SHIRAKU 100% Pure Sesame Oil</b> \$9.99 59.5oz.	<b>GI Dashi</b> \$9.99 2.2 lbs.
<b>DONGWON Canned Tuna</b> \$7.99	<b>S&amp;B Golden Curry</b> \$2.99	<b>GI Korean Sweet Pancake/Sesame Bread Mix</b> \$3.99	<b>SPAM</b> \$2.5
<b>HUY FONG FOODS Sriracha Hot Chili Sauce</b> \$1.99	<b>KTOWN Melon/Sesame &amp; Coconut</b> \$0.99	<b>SUNHAK Electric Pad</b> \$49.99	<b>SUNHAK Electric Pad</b> \$54.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주) (주) H-MART BURLINGTON STOR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TEL: 781-321-4570/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 中 "롯데 제재 지극히 당연...액션 안하면 바보되는 것"

환구시보 사설...자국내 반대론에 반박  
"미국 공범된 데 한국은 무거운 값 치러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한국 기업 불매 운동을 둘러싼 움직임에 중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다.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2일(현지시간) 자 사설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부지 관련 계약을 맺은 롯데 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을 '쇼비니즘(배타적 애국주의)'이라고 주장한 중국내 비판 여론을 재반박했다. 환구시보는 중국내 다수가 롯데 그룹 등 한국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는 반대하고 있다며 이것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중국 사회에 선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사회는 한국에 제재를 가한다는 데 공동의 합의가 내려졌다"면서 그 반대 의견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매체는 먼저 롯데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내 여론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 움직임에는 부드럽게 대하면서 자위 수단으로써 추진하는 한국의 사드에 과민반응한다고 문제삼고 있으며 국가간 분쟁을 이유로 기업을 공격하는 것은 틀리다고도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1일 중국 인터넷매체 동북아재경(財經)의 웨이신 계정 등이 롯데 제재를 전형적 쇼비니즘이라고 칭하면서

중국 정부에 법에 의거한 행동을 촉구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환구시보는 "그들이 무얼 고려하던 이 같은 입장은 틀린 것이며 현 상황의 한쪽 면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중국의 장기적 파트너였던 한국이 사드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위협해 양국 우호 관계를 배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 정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 도발에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수십년간 중국이 동참하면서 최근 중국-북한 관계에 격변이 생겼다는 것이다. 매체는 "미국과 한국은 중국 정부와 북한 정권이 서로에 적대적이 되길 원하지만 중국은 지정학적 바보가 되지

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롯데에 대한 제재가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걱정할 부분이지 중국의 우려사항이 아니라면서 "한국 제재는 시행할지 안 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단언했다. 중국에 미치는 경

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력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반(反)한 운동을 억제하는 데 취중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환구시보는 "한국은 미국의 공범이 된 데 대한 무거운 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yjw@news1.kr



중국 웨이룽식품(왼쪽)과 타오떠우(오른쪽)는 웨이보를 통해 롯데와의 협력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中 '도넘은 사드반발'...북중러 vs 한미 '대립구도' 만드나

韓 부지결정 후 北·러 고위인사 거의 동시에 방중  
中 반발시위인 듯...동북아 신냉전구도 심화 우려도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연대해 사드 반대에 대한 '북중러'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러시아와 외교차관급 회담을 열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한 목소리로 발신했다. 경향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회담 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중러의 이익과 지역전략균형을 해치지 않길 바란다"고 위협했다. 공교롭게도 중국은 같은 날인 28일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중했음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5월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의 방중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상이 방중 계기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한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과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 조리 등 중국측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거의 동시에 이뤄진 북한, 러시아 인사의 방중은 우리 정부가 지난 달 27일 롯데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 확정된 데 대한 중국의 '반발 시위'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의 반발에도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전화 대담을 갖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

국 국민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항"임을 재확인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동북아에 또다시 한미일 대(對)북중러와 같은 신냉전 구도가 드러날 것이라 우려도 제기된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한미 안보협력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구체화될수록 중국은 러시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북중러 구도에 한발 더 다가가는 상황을 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greenaomi@news1.kr



중국 베이징을 방문중인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1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했다. (중국 외교부)

## 아모레퍼시픽도 수입불허 명단포함... '사드보복' 우려 ↑

라네즈 로션·수분미스트 등 3종 1월 명단에 포함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현실로 나타나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화장품도 중국이 발표한 수입 불허조치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이 불허돼 논란이 있었지만 'K뷰티' 대표 주자인 아모레퍼시픽도 예외없이 수입불허당한 것이어서 '사드보복'이 아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발표한 '2017년 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는 아모레퍼시픽 라네즈의 로션·수분미스트 등 3종이 포함됐다. 제품명은 '화이트플러스리뉴 에멀전'과 '워터사이언스 수분보습' '워터사이언스 민감진정'으로 각각 지난해 3월, 10월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중국 질검총국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서 '황색포도당구균'이 검출돼 수입불허됐다. 화이트플러스리뉴 에멀전 350kg,

수분미스트 2종이 353kg 물량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모두 소각 처리했다"며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불허조치된 건 아니지만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해태제과의 계란과자(45kg)도 첨부서류 미비를 이유로 수입 불허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10월은 중국과의 외교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이어서 '사드 보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통상적 발표에 아모레퍼시픽 라네즈의 일부 변질된 제품이 적발돼 발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처음있는 일인데다 성분이 아닌 미생물이 번식했다는 이유로 불허 조치가 내려진 것이어서 사드와 관련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아모레퍼시픽 라네즈 '워터 사이언스 미스트'

김정남 피살로 북중관계가 꺾기 어려워질 것이라 관측도 있었지만, 중국 외교부는 보란 듯 리 부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w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Single Family**  
5 Duxton Lane Acton MA  
9,547sqft, 9,13 Acres 8 Bed  
4.5 Bath  
**SOLD**



**Condo**  
17 Berkeley Ave. Boston MA 2 Units.  
Boston Center City, 2022 sq ft  
remodeled Condo. 2nd Floor 2 Bdr, 2  
Bath. 7-8 hours of parking. 1.5 mile to  
Asking \$891,000, \$999,000



**상점 & 스파**  
Roslindale 위치.  
1,200 sqft.  
Rent \$2,500  
Asking \$45,000



**한식&일식 식당**  
Physical 양재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monthly turnover.  
Asking \$450,000

**LISTINGS**

- 1. Full Price \$999K | NEWBY 개, 무방한 리모델링 \$1,900K **SOLD**
- 2. Full Price \$750K | Roslindale 2000 sqft 4Bdr \$650K
- 3. Full Price \$650K | 5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4. Full Price \$55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5. \$250K \$25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6.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7.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8.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9.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10.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11.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12.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13.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14.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15.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16.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17.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18.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19.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 20. \$100K \$100K | 2000 sqft 2000 sqft 4Bdr \$650K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면적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799,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easings 지역  
좋은 위치  
**Nice location**  
Asking \$18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프론트**  
Brookline  
현재 세무소영업중.  
좋은 임대수입  
**Nice location**  
Asking \$509,000



**한국식당**  
보스톤 남쪽에 위치  
Full liquor, 양장면 수리  
넓은 공간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 트럼프, 대북 발언 수위 점점 높아져... "北, 곧 처리"

'우선순위가 높다->강하게 다루겠다-> 화나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적인 만찬 자리에서도 북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속한 문제 해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핵·미사일 실험에 이어 김정남 암살까지 자행한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목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1일 미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방송(WCPO)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18명의 지역방송 기자들과 가진 저녁 만찬장에서 "북한은 세계에 위협이다. 북한은 세계의 문제다"면서 "북한은 곧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

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첫 의회 연설을 앞두고 이같이 발언하면서 기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던 중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하며 도발했다. 여기에 김정남 피살 사건까지 겹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연일 나오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신상태에 의심을 보이면서 북한의 위협을 타개하는 걸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고위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지난 10일 아베 총리와 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선 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은 크고 큰 문제이다. 매우 강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 2주 뒤인 23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김정은이 한 일에 매우 화났다. 솔직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처리했어야 했다"고 발언했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북핵 해법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백악관 내부서 관련 정책이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cef08@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워싱턴 D.C 의회에서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뒤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앉아 있다

## "리정철, 내일 구금기한 만료...北으로 추방될 듯"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가능성... '이민법' 위반만 적용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김정남 암살사건의 용의자 가운데 1명인 북한 국적 리정철이 말레이시아 사법 당국에 기소되지 않은 채 북한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일간 '더 선 데일리'는 2일 소식통을 인용, "리정철이 3일 구금기간이 만료돼 경찰로부터 풀려날 예정"이라며 "이후 수일 내에 북한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달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신경작용제 VX에 노출돼 살해된 사건과 관련, 범행 '실행범'으로 지목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영과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사는 각각 전날 말레이시아 경찰에 의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상태.

그러나 현지 경찰은 리정철의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 다른 용의자들의 범행 준비를 도왔을 것이란 심증 외엔 뚜렷한 물증이 포착되지 않아 살인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중국어 매체 '중국어보'도 "리정철이 (김정남 암살 장소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내 감시카메라 영상에 찍혀 있지 않은 데다 기소된 다른 용의자 2명과 의 연관성도 불분명하다"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이에 따라 리정철은 김정남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일단 석방된 뒤,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국외로 추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리정철은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 신분으로 현지 건강보조식품업체 '툼보 엔터프라이즈'의 정보기술(IT) 부서에서 3년간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총아코우(張雅誥) '툼보 엔터프라이즈' 사장이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자 발급을 돕기 위해 리정철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한 것일 뿐 실제론 출근해서 일하거나 급여를 받아간 적이 없다"고 밝혔던 만큼 리정철이 '이민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국외 추방 대상이 된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설명이다.

싱가포르 방송 '채널 뉴스 아시아'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경찰이 리정철을 기소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추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리정철이 석방된 뒤 북한으

로 추방될 경우 김정남 암살사건에 북한 당국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는 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현지 북한 대사관을 통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북한 국적 용의자들의 신병 확보 등 수사 협조를 요구했지만, 북한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더 선 데일리'는 김정남 암살 사건 직후 북한으로 돌아간 북한 국적 용의자 4명 가운데 "리재남이 리정철과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며 "리재남이 작년에 말레이시아에 왔을 때 리정철이 여러 사업가들을 소개해 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ys4174@news1.kr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의 용의자 가운데 1명인 북한 국적 리정철이 지난달 18일 오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세팡 지역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 말레이시아, 북한 비자면제 협정 6일자로 취소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자면제 협정을 오는 6일자로 취소한다고 2일 현지 뉴스 통신 버나마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내무장관의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이에 따라 북한 국적자들은 말레이시아 입국 시 별도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 안보를 우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민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내무부의 결정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73년 북한과 수교를 맺은 말레이시아는 2009년 북한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 형인 김정남은 지난달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에 의해 암살 당했다.

하지만 북한은 암살 사건의 배후임을 부정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말레이시아는 주 평양 말레이시아 대사관 소환하며 양국 외교적 마찰로 확대됐다.

soho0901@news1.kr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 중 1명인 베트남 출신 도안 티 흐영(왼쪽)

# 불판

## 바베큐&라운지



ALL YOU CAN EAT:  
**\$39.95**

안장살, 주물럭, 불고기, 차돌박이, 닭불고기, 돼지불고기, 삼겹살, 뼈없는 갈비, LA갈비, 통심, 곱창, 새우, 오징어, 모듬고기 등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반찬 및 공기밥



### 가장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영업 시간**  
 Mon-Thu : 11:30am to 10:00pm  
 Fri-Sat : 11:30am to 11:00pm  
 Sun: 12:00pm to 10:00pm

**연회석**  
60여명 수용, 가라오케 완비

**스시바**  
각종 스시 및 상생한 회

**히바치**

**바베큐**  
안장살, 주물럭 등 각종 바베큐

**BAR**  
Full Liquor 라이선스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트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mailto: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http://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Dr. Larisa Turka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통 현**  
 교정 전문의

# '헌재흔들기' 위험수위... '헌재도 탄핵 위헌'가짜뉴스까지

대통령측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 무분별 유포  
"지금 필요한 건 헌재 결정 기다려주는 것" 지적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근혜 대통령(65)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은 가운데 최근 근거없는 허위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일부는 박 대통령측이 주장하는 탄핵각사유 근거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 보수성향 커뮤니티나 SNS에는 박헌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전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절차상 하자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이 떠돌고 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이 글은 언론사 로고가 박힌 사진을 함께 첨부하며 박 전 소장이 '특검의 태생이 잘못됐다' '특검법은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태극기집회가 정통 민의라고 본다' '태블릿PC 건은 실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바람을 일으킨 것에 속지 말고 애국시민운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며 박 전 소장의 뜻인 것처럼 교묘하게 탄핵각사유에 참여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

또 다른 글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전 헌법소원 사건에서 박헌철 전 헌재소장,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8인 재판관 체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자체가 무효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4명의 재판관은 2014년 4월 24일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며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은 국회가 2011년 7월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재판관 공석상태가 약 1년 2개월간 계속돼 2012년 1월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이다.

실제로 2012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부결됐고 이후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 사임하고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자 선출절차가 지연됐다.

이 판결은 재판관 5명이 '각하', 4명이 '반대' 의견으로 '각하'로 종결됐다. 사건심리 중 재판관이 선출돼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 청구인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들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탄핵심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해 임명된 재판관이 공석인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을 선출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음에도 국회가 선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이들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않음)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작위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됐던 기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뤄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고 명시했다.

즉 8명의 재판관으로 내린 결정도 관련 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등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면과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 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는 1일 제15차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8인 헌법재판관에 의한 판결'이 위헌임을 확인했다"며 "8명의 헌법재판관이 심리하는 이상 설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안팎에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며 수위를 넘

은 주장으로 헌재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여러 가짜뉴스나 왜곡된 주장 등으로 침소봉대(針小棒大)해서 헌재를 흔들기보다 헌재가 치열한 평의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나중에 헌재의 결정이 났을 때 시비거리를 이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재가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면 행정부나 입법부도 승복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삼권분립이고 법치주의다"라고 설명했다.

silverpaper@news1.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려는 시민들과 취재진, 경찰 등이 한꺼번에 몰리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 '가계빚 풍선효과' 비은행 신용대출 은행 넘어선다

지난해 말 은행 174.9조 vs 비은행 172.6조  
분기마다 평균 2.6조씩 늘어 이달 말 추월할 듯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가계대출 풍선효과에 따른 비은행의 신용대출 증가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추세를 고려하면 이달 말엔 비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은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기타대출 증가액은 비은행이 은행보다 분기 평균으로 2조 6000억원가량씩 많았다.

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기타대출(신용대출) 잔액은 은행이 174조 8562억원, 비은행 예금기관이 172조 5572억원이다. 비은행 예금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을 뜻한다. 기타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다.

은행과 비은행의 기타대출 차이가 2조 2990억원에 불과하다. 신용대출 증감률을 보면 2008년만 해도 은행이 13.5%로 비은행(10.9%)을 앞섰지만, 2009년부터 비은행이 추월했다. 지난해 은행의 신용대출이 7.9% 늘어나는 동안 비은행은 15.7%나 불어났다.

분기별로 봐도 비은행 신용대출이 은행을 곧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분기별 은행 신용대출 증가액은 3조 2000억원 정도지만, 비은행 신용대출은 분기 평균 5조 8000억원씩 늘어나며 속도가 빨랐다.

한은 통계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보험사·

카드사·공적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수요도 늘었다. 기타금융기관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62조 9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15조 9000억원 늘었다. 보험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보험기관의 4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 6000억원으로 3분기(1조 9000억원)의 2.4배에 달했다.

신용대출은 단기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아 금리 변동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1월 신규취급액 기준 15.51%에 육박한다. 은행 신용대출 금리도 4.51%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3.39%)를 웃돈다.

취약 가구의 비은행 이용률이 높고, 특히 이들이 담보도 없이 신용대출도 몰린다면 문제는 더욱 크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은행의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3.7%에 불과했지만, 비은행은 10%에 달한다. junoo5683@news1.kr



## 삼성 미래전략실 완전 해체, 각사 자율경영체제로

대표이사·이사회 중심...미전실 팀장 일괄 사임  
사장단 회의 폐지...대관업무 조직도 해체

(서울=뉴스1) 서명훈 기자 =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던 미래전략실이 완전 해체됐다. 이에 따라 각 계열사는 대표이사과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자율 경영을 펼치게 된다.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은 28일 "오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을 일괄 기소했다"며 "사태가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이 미래전략실에 있음을 통감하고 완전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실차장(사장)을 비롯해 미전실 모든 팀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전원 사임한다"고 덧붙였다. 사임 이후 다른 계열사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퇴사하기로 했다.

이 팀장은 또 "이후 각 계열사는 대표이사

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 경영을 할 것"이라며 "사장단 회의도 폐지하고 대관 업무 조직도 해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출연금 및 기부금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에서 물러나고 사장직도 내려놓기로 했다. 또 승마협회에 파견된 직원들은 소속사로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황성수 전무에 대한 인사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은 미전실 해체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준 팀장은 "미전실 해체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 궁금해 하겠지만 그룹이 해체된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각사가 자율 경영하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hsuh@news1.kr



신입회원및 학생회원의참가를 환영합니다.

# 보스톤 중앙대 동문회 제21차 정기총회



안건: 21차 정기총회  
 일시: 2017년 3월 5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불판 그릴&라운지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문의처: 회장 이기환: 781-270-4627



동문들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고자 동문님과 가족 여러분을 모시고  
 21차 정기총회 를 가지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 하셔서 청량 중앙인의 사랑과 화목의 자리를  
 빛내 주시고 명수대 언덕 추억의 강가를 함께 거니는 보스톤 중앙인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BOSTON 중앙대학교 동문회원 (순서없음)

- |               |           |           |            |            |            |              |
|---------------|-----------|-----------|------------|------------|------------|--------------|
| 김정숙(경제 54)    | 한윤영(심리55) | 김섭(사사62)  | 신영각(경영대학원) | 이전주(화학60)  | 김재숙(화학64)  | 이경빈(신방59)    |
| 김광수(정의75)     | 박성규(심리64) | 김유상(국문64) | 이기환(광선65)  | 강천성(기계70)  | 김옥식(심리77)  | 김세형(회공77)    |
| 한호순(문창84)     | 홍영균(정영86) | 이시원(약학83) | 윤정우(약학62)  | 김아람(사진87)  | 이상현(정영62)  | 조계석(디자인91)   |
| 강을주(조소91)     | 유정렬(철학88) | 유영란(불문87) | 이정원(정영85)  | 문송(문창85)   | 정성욱(약학 82) | 장승훈(건축공학 70) |
| 석선옥(정영70)     | 김병호(법학78) | 김영주(교육82) | 이재석(토목89)  | 김배규(피아노96) | 이여름(무용97)  |              |
| 유혜경(음악대학원 98) |           |           |            |            |            |              |

##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 Tufts Composers: Music Old and New 신곡 발표 및 전통 국악, 무용 공연



1부: 터프츠 대학교 작곡 발표  
 가야금, 피리, 서양 악기

2부: 국악/전통 무용  
 오정희 가야금 병창  
 강은주 진도 북춤  
 김도연 가야금  
 이나연 피리, 탈춤  
 장동윤 장구



3월 14일 (화) 오후 8시  
 무료 입장

Granoff Music Center  
 Tufts University  
 20 Talbot Ave. Medford, MA



주최 터프츠 대학교

후원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 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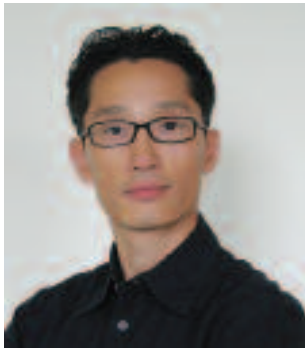
#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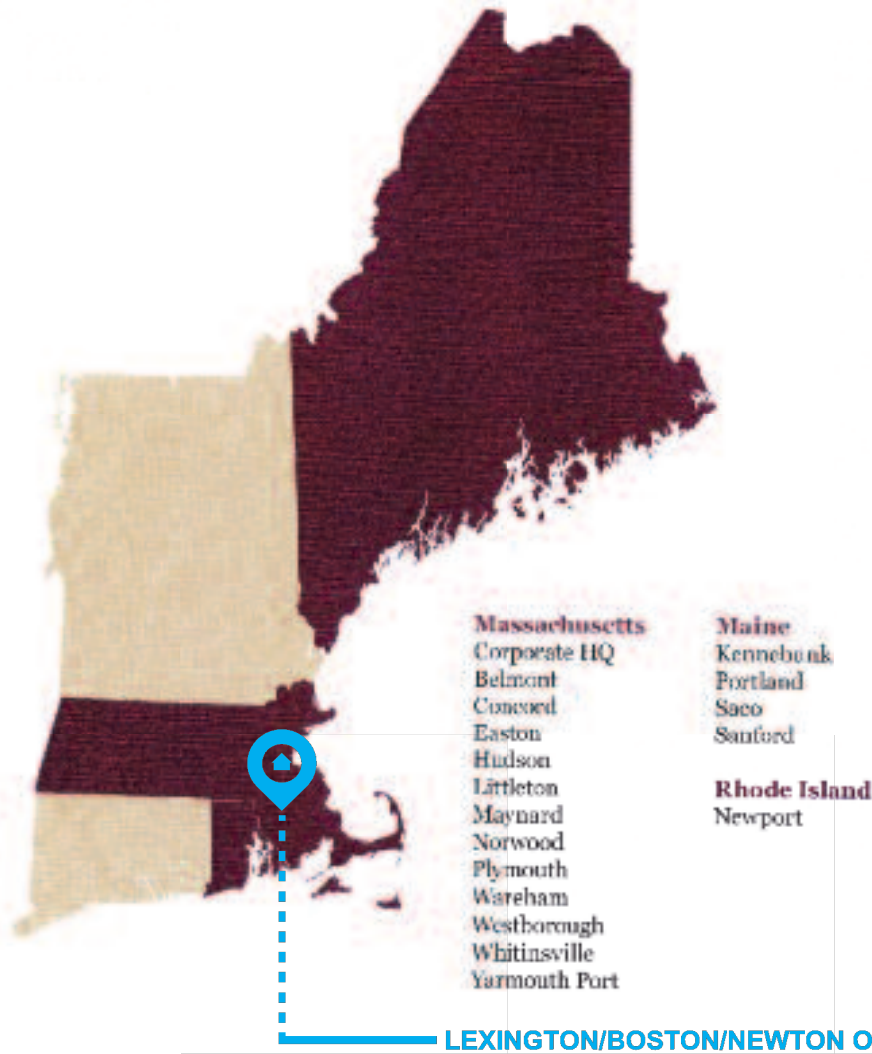
**Angela Eleazar**  
617.319.6657



**AI Magurn**  
508.733.2949



## OFFICE LOCATIONS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 컴바인을 앞둔 패트리어츠의 체크 리스트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다음주 초부터 인디애나폴리스에서 NFL 컴바인이 시작된다. NFL 컴바인은 프로 풋볼 팀들이 선수 선발에 앞서 실시하는 일종의 체력 테스트로 달리기, 멀리뛰기, 벤치 프레스, 제자리 높이 뛰기, 3콘 드릴, 셔틀런 등이 시행된다.

NFL 드래프트에 참여하길 원하는 선수들은 NFL 컴바인을 거쳐야 한다. 매년 NFL 드래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컴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주일 동안 치러지는 컴바인 기간 동안 NFL에 속한 모든 팀의 감독 및 코칭 스태프, 스카우터들이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 인디애나폴리스를 찾는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컴바인에 앞서, 패트리어츠가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자.

### 지미 거라폴로 트레이드:

공식적으로 자유계약 선수에 대한 계약과 트레이드는 3월 9일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뛰어난 선수들의 경우 자유계약 시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계약이 체결된다. 예상보다 빠르게 선수들은 속속 새로운 팀을 찾아가고 있다.

패트리어츠의 수퍼볼 우승 이후 백업 쿼터백인 지미 거라폴로의 트레이드 설이 계속해서 언론을 장식하고 있

다. 거라폴로는 탐 브래디가 출전을 못하는 기간 동안 선발 쿼터백으로 패트리어츠의 공격을 이끌고 승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거라폴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거라폴로의 가치는 최소한 드래프트 1라운드 선택권으로 여겨진다. 패트리어츠가 올해 오프시즌에는 거라폴로를 트레이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동시에 패트리어츠가 다른 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 패스 러셔 발굴:

패트리어츠가 오프시즌 중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패스 러셔다. 패트리어츠는 2016 정규시즌 동안 34개의 쿼터백 색을 성공시켜 NFL 최하위권인 32위를 기록했다. 이전 시즌의 49개와 비교해도 확실히 낮아진 수치다.

뛰어난 패스 러셔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패트리어츠는 거라폴로의 트레이드를 잘 활용해야 한다. 거라폴로 트레이드를 통해 1라운드 초반 드래프트 선택권을 얻게 되면 패트리어츠는 바로 2017 시즌에 출전 가능한 패스 러셔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드래프트에는 패트리어츠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패스 러셔 선수들이 있다. 다만 이런 선수들은 드래프트 1라운드 이내에 다른 팀에 선택



NFL 무대에 서기 위한 관문인 컴바인이 다음 주에 시행된다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자유계약 선수 계획:

패트리어츠 주전급 선수들 중에서 13명이 계약 연장이 없다면 다음 주에 자유계약 선수가 된다. 자유계약 시장

은 빠르게 움직이고, 패트리어츠는 주전 선수들이 떠날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드래프트 선택 전략 역시 어떤 선수를 내보내고 어떤 자유계약 선수를 영입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자유계약 선수들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컴바인과 자유계약 시장, 드래프트에서 패트리어츠가 성공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jsi@bostonkorea.com

## 최지만 · 황재균 무안타...박병호 · 추신수 · 김현수 휴식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최지만(26·뉴욕 양키스)과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무안타로 침묵했다.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는 박병호(31·미네소타 트윈스)를 비롯해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나란히 휴식을 취했다.

최지만은 28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나 잭블루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8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했지만 3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쳤다.

최지만은 2회 첫 타석에서 삼진, 5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3루 땅볼을 쳤고, 6회에는 2사 1,3루 찬스에서 또 한 번 삼진을 당했다. 이후 8회 대타로 교체됐다.

최지만은 시범경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 선발로 출장했지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시범경기 타율은 0.143(7타수 1안타)로 떨어졌다.

최지만은 침묵했지만 소속팀 양키스는 '라이벌' 보스턴을 5-4로 누르고 시범경기 4승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황재균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대수비로 출전해 한 타석을 맞이했지만 삼진으로 물러났다.

6회말 코너 길라스피의 대수비로 경기에 나선 황재균은 8회초 선두타자로 이날 경기 유일한 타석에 들어섰지만 루킹 삼진으로 물러났다.

소속팀 샌프란시스코는 5-9로 패해 시범경기 전적 3승2패를 마크했다.

한편 시범경기에서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좋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박병호는 탬파베이 레이

스와의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다.

박병호는 현재까지 시범경기에서 7타수 4안타(0.571) 2홈런 4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개막 엔트리 진입의 희망을 키우고 있다.

이날 미네소타는 0-19의 대패를 당했다.

전날 시범경기 첫 안타를 신고한 추신수 역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나서지 않았다. 소속팀 텍사스 역시 4-8로 패했다.

김현수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았다. 볼티모어도 5-7로 패배를 맛봤다.

starburyny@news1.kr



뉴욕 양키스 최지만(26)

## 류현진, 1일 3번째 라이브 피칭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시범경기 등판이 무산된 류현진(30·LA 다저스)이 세 번째 라이브 피칭에 나선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28일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류현진이 수요일 오후 라이브 피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류현진은 당초 이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에서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은 잘 회복 중이지만 아직은 제한된 상황에서의 투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5월 어깨 수술, 지난

해 9월에는 팔꿈치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이번 스프링캠프를 통해 선발 로테이션 복귀를 노리고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과 25일 타자를 세워놓고 던지는 라이브 피칭을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큰 통증을 느끼지 않아 청신호를 밝혔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두 차례 수술과 함께 오랜 기간 재활에 매달린 류현진의 실전 등판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양새다.

류현진으로서는 몇 차례의 라이브 피칭을 통해 완전히 회복됐음을 각인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starburyny@news1.kr



LA 다저스 류현진(30)

# POSPay



##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Boston

**사순피정**  
3/10(금) 7PM-10PM  
3/11(토) 10AM-4PM  
지도신부: 이재규(베드로)  
주제: 고통에 대한 인간의 생각  
음기를 중심으로

**성목요일 (4/13)**  
8pm-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4)**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4/15)**  
9pm-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4/16)**  
3pm 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 kccb@gmail.com  
www.stdaveu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톤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사랑과 기쁨의 터전입니다 (행 2:14)

주일예배 / 오후 6시 | 금요기도회 / 저녁 7시  
송년 / 송년 / 찬양 / 경외봉부예배 / 생연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 7시 | LIFE 모임 / 주일 8시

담임 목사 / 무지함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톤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약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임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37.9117  
www.mil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I494에서 15분 거리

유체부: 임성경 목사  
유년부: 임경숙 목사  
유소: David & Susan 권도사  
영남/360 Erika Kim 권도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JEONGIL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기종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평일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별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열립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95, (978) 944-3404  
www.jeongil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참고예배: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8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9: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9월-5월)  
우스터한인학교: 월 9:30-11: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902.790.4488  
http://www.kuc.org

담임목사: 김현터  
817.73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알게 하신 말씀이 영혼을 깨워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사모 사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부활하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송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예배 주일오후 12:30  
속회예배 수-주일 속회별  
특별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상봉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주 법세 관련 카드결제 관련회사로서 미 영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와 2it카드 결제, 가짜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영미대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외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이선호**  
781.266.7245



# HAPPY

## 해피돌상

**고급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고풍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 음력을 더하는 최첨단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유아용품과 천기, 골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 크라우저 앤 서 로펌

###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http://www.suhlawyer.com)

##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274.5723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생선가게(매타팬)에서 생선 판매 및 케시어 하실 분(풀타임) 구합니다.  
T. 603-401-4986

SAT/SSAT/ACT/TOFEL 21년 전문지도  
현직 고교 SAT/AP 영어교사  
확실한 효과 보장 T. 781-392-8505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육기관 에듀 보스톤에서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 회계학 전공자 (또는 관련 전공자, 경영, 경제)
- Quickbook 사용가능자 우대
- 엑셀 사용가능자
- 영어/한국어 필수
- 보수 : \$40K
- 문의 : 617-254-1117, myung@eduboston.com
- 지원을 하실 분은 위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시오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atick 지역 세탁소. 대상 \$600K, 매매가 \$600K. Owner Financing 가능  
T. 617-943-3502

4989 부동산 매각하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은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 가정폭력상담소(Fx.33) 617-338-2352
- 견인 800-632-8075
-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 공중위생국 617-624-6000
- 구세군 617-536-7469
- 국세청 800-829-1040
- 날씨문의 617-976-6200
-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 미아찾기 888-477-6721
- 백메이역 617-345-7958
-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 보스톤수도 617-989-7000
- 보스톤시청 617-635-4500
-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 사우스역 617-345-7958
- 사회보장국 800-772-1213
- 성폭행 781-237-9110
- 성폭행 617-492-8300
- 시간문의 617-637-123
- 아동보호 617-418-2000
- 아동학대 800-792-5200
- 알코올/마약 617-445-1500
- 여성학대 617-248-0922
- 온전연허 617-351-4500
- 펠러워 617-348-8500
- 자원봉사 800-522-8086
- 적십자 800-564-1234
-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 전화교과선고 (Verizon) 617-555-1515
- 텍스 617-343-4475
- AAA 800-222-4357
- FBI 617-741-5533
- MBTA 800-392-6100
- NSTAR가스 800-572-9300
- NSTAR 전기 800-592-2000
-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 메인 한인회 207-756-0092
-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 국제결혼자정신건강학회 978-407-7554
- 국제결혼자정신건강학회 603-889-8201
- 뉴잉글랜드폴프협회 617-438-9763
- 뉴잉글랜드공공전문회 978-902-8305
-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 뉴잉글랜드신문협회 978-688-3137
-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 재향군인회 339-298-7187
- 세약인협회 508-826-5270
- 이팩도도인협회 978-514-3399
-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 한국인양자동맹(메인) 207-878-5652
-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 산사람 774-270-1948
-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 서울신대대학교동창회 802-734-2521
- 성균관대동창회 508-541-6969
-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617-277-0730
-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 강원도민회 617-875-1801
- 충청향우회 678-717-8800
-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 한인일보 781-933-8822
-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 기독교 구세군 물등교회 617-792-8780
-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 글로벌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 낮아짐교회 781-832-2014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 갈보리교회 413-789-9888

- 구세군물등교회 617-792-8780
-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 그린리치한인교회 203-861-1134
-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 내슈아한말음교회 603-888-8040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 로드아일랜드성교회 401-353-0983
-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2500
-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 메리맥 교회 978-806-1363
- 목양교회 617-223-1690
- 무지개교회 207-774-1617
-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 보스톤 새로운교회 617-947-6765
-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 보스톤 생명의교회 978-578-6987
-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 보스톤 한글교회 781-396-1004
- 보스톤 소망교회 617-686-5526
-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 보스톤 933-7044 781-933-7044
-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 보스톤침례교회 857-636-9985
-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 비전교회 617-308-2391
- 새빛교회 781-652-0001
- 세메루살렘교회 774-249-0022
-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 성요한 교회 781-861-7799
-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22
-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72
-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 안디옥 교회 978-534-3394
- 열방교회 617-620-3352
- 에이비 벨연교회 978-274-2369
-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 울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 우스터 교회 508-799-4488
-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 워싱턴로교회 918-876-2815
-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 자연교회 603-437-6151
- 좋은땅교회 978-930-6613
-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 한인회

-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 메인 한인회 207-756-0092
-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 국제결혼자정신건강학회 978-407-7554
- 국제결혼자정신건강학회 603-889-8201
- 뉴잉글랜드폴프협회 617-438-9763
- 뉴잉글랜드공공전문회 978-902-8305
-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 뉴잉글랜드신문협회 978-688-3137
-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 재향군인회 339-298-7187
- 세약인협회 508-826-5270
- 이팩도도인협회 978-514-3399
-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 한국인양자동맹(메인) 207-878-5652
-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 산사람 774-270-1948
-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 서울신대대학교동창회 802-734-2521
- 성균관대동창회 508-541-6969
-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617-277-0730
-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 강원도민회 617-875-1801
- 충청향우회 678-717-8800
-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 한인일보 781-933-8822
-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 기독교 구세군 물등교회 617-792-8780
-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 글로벌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 낮아짐교회 781-832-2014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 갈보리교회 413-789-9888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 이영환 회계사 617-455-8073
- Hana Rehab Clinic 508-584-5860
- Hana Rehab Clinic 508-584-5860
- 한미회계사 617-792-2355
-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 미스티화원 617-666-3116
- 대교플라워 617-875-0648
-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 인디펜던트(퓨어) 617-777-2929
- 에이저리 781-591-2722
-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컨/히팅

- JK 플러밍 978-303-7000
-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동물병원

-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 운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주문)

- 형제떡집 978-975-3303
- 장음식주문 781-648-0584
-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 가위소리 617-782-8111
-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 뷰티웨이 헤어살롱 857-284-3879
- 세리 미용실 781-676-7374
- 압구정동알밤방 617-437-0378
- 케이토크메이커 508-734-4446
- 웨스트헤어디자인 508-768-7675
-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 헤어 스킨 617-787-1735
- 헤어 센스 617-773-1220
- 헤어 Collage 617-354-4660
-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808-879-7777
- MIN-AH MAKEUP 508-617-7122
-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 대상 대여/폐백

- 해피대상 617-249-3131
- 폐백 978-688-0929

### 방송국

-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변호사

-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 김성근 변호사 781-438-6100
-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 김성근 변호사 781-438-6100
-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 스티븐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 워드랜드/맥켈변호사 203-324-6155
-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 내과 송민근 617-696-7600
- 하버드병가(의재) 617-421-2282
- 한시동내과 401-722-0305
-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 이은노산부인과 508-427-3000
-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이해필리카운셀링 508-728-0832

### 재활의학

-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 덕터스중재병원 617-731-1004
-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 추 남남 D.C. 617-230-4250
-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 보스톤컨테트카이로 617-277-0648

### 치과

- 김동원치과 978-689-9363
- 김정주 치과 860-623-2601
- 원은애치과 978-655-1583
- 신영목 치과 617-265-5606
- 안 치과 781-647-8000
-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 이영환치과 508-987-8228
- 이요셉치과 781-431-7295
-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 케임브리지덴탈어닉스 617-871-1482
- 켄지스아치과 617-471-2184
- 손영권치과 978-459-0594
- 프랑스덴탈그룹 617-576-5300
- 한은애치과 781-894-1127
- 아이던덴탈 781-861-8978
-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 전문치과 401-729-2711
- Smart Dental 781-322-4914
- ACTION 살롱치 978-263-4592

### 기타

-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 문하영림 보청기 781-573-3277

### 보석

- 국제보석상 617-523-2553
- 메타판보석 617-298-6661
- 우리보석 781-272-2400

### 보험

- 이윤형 보험 781-325-3406
- 조중순 종합보험 781-255-1134
- 베스트치즈(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 비디오

-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부동산

- 뉴스타부동산(손숙남) 617-290-0623
-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 순옥원부동산 508-737-8636
-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 이정선 617-535-7851
- 이도정(Condo & Rental) 781-771-0047
- 정혜유부동산(EXT.125) 603-770-3491
-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 사진관

-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 영스타디오 774-253-1800

# 해마다 늘어나는 두통 환자, 방치하면 '만성 두통' 위험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만성 편두통 심해지면 빛, 소리, 냄새 등 작은 자극에도 일상생활 어려워져"

직장인 김모씨(36세)는 최근 들어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10여년 간 지속되어 온 두통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동료들과 환담을 나누거나 식사를 할 때에도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두통으로 인해 제정신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평소 먹던 진통제도 잘 듣지 않아 더욱 괴롭다. 최근에는 두통뿐 아니라 어지럼증까지 찾아오면서 더욱 괴로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두통은 누구나 한 번은 겪는 흔한 질환이다. 대한두통학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70~80%는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한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자료에도 편두통·기타 두통 증후군을 앓는 환자의 수가 지난해 273만여명에 이르며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두통 환자 대부분은 그냥 참거나 진통제로 대처하는 등 그저 가벼운 질환으로 생각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두통은 제 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두통으로 악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우울증 등 정신장애까지 앓을 수 있는 만큼 제 때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신경과 강석재 과장은 "대부분 두통환자들은 한시적 현상으로 생각하거나 뽕죽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판단, 진통제 복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만성두통은 진통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

히려 이러한 대처가 증세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자의적 판단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만성 편두통'이다. 편두통은 대개 머리 한 쪽이 아픈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자마다 그 증상이 다르다. 주로 한쪽 관자놀이 주위가 아픈 것이 특징이지만 때로는 머리 전반에 나타나기도 하며 그 증상도 칼로 찌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두통과 함께 눈부심, 현기증도 동반하는데 심하면 빛이나 소리 등 작은 자극에도 큰 고통이 동반될 수 있다.

편두통 원인인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대개 유전적 요소와 함께 뇌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농도 변화, 음식,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등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편두통은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편두통과 연관된다는 추정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 치료하는 이들이 적다는 점이다. 대한두통학회에 따르면 두통을 경험한 뒤 3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한 이는 23.2%에 불과했다. 반면 두통 경험 후 3년 이후에 병원을 찾은 이는 36.6%에 이른다. 두통 해결을 위해 처방전 없이 진통제를 처방 받는 경우는 63.8%로, 두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만성두통으로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심각한 통증 탓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무력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 발생가능성도 많다.

**'만성 편두통, 참지 말고 병원 방문해 원인 찾고 치료해야'**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에 시달리거나 8번 이상 편두통 증상이 있다면 만성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통제로 해결하기 보다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고 질환이 만성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 특히 기초검사를 비롯해 혈액검사, 뇌혈관 검사, 뇌혈류 초음파 등 두통의 원인을 찾고 이에 걸맞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습관 교정도 중요하다. 적절한 마인드컨트롤과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은 두통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에 충분한 혈류를 공급해 편두통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두통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약물을 계속 복용할 경우 약물 의존성 두통이 발생해 기존 두통보다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강석재 과장은 "만성 편두통은 편두통 예방 약물치료를 통해 호전을 보이는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예방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만성편두통은 보톡스 치료를 적용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 이러한 치료도 경우에 따라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했다.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호를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폭,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압통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개인기밀 특별**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치료 가능 (200reg. \$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알리안트PPO, 후디커, 학교/유학생/이민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목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풍 및 척추측만 교정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 트와이스, 귀여움으로 팬들 마음을 'KNOCK KNOCK'

(서울=뉴스스타) 권수빈 기자 = 그룹 트와이스가 컴백했다.

트와이스는 26일 오후 12시10분 방송된 SBS 생방송 '인기가요'(MC 진영, 지수, 도영)에서 'KNOCK KNOCK'을 선보였다.

이날 트와이스는 컬러풀한 핫핑크 의상으로 등장에 귀여움이 넘치는 무대를 만들었다

. '치어 업', 'TT'에 이어 상큼함이 터지는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노크했다.

트와이스의 신곡 'KNOCK KNOCK'은 신나는 하우스비트 음악으로, 트와이스 특유의 발랄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노래다.

ppbn@news1.kr

## "이번엔 제복" 여자친구, 진화된 컴백

(서울=뉴스스타) 손현석 기자 = 걸그룹 여자친구의 새 앨범 '디 어웨이크닝 (THE AWAKENING)' 콘셉트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여자친구는 27일 자정, 공식 SNS를 통해 새 앨범의 타이틀곡 '핑거팁(FINGERTIP)' 컴백 트레일러 영상과 콘셉트 포토를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 속 여자친구 멤버들은 블랙 컬러의 제복을 입은 모습부터 인상적이다. 무표정한 얼굴의 이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여전사의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기존의 교복 스타일에서 탈피, 한층 더 성숙한 이미지를 뽐낸 것. 여기에 일렉트로닉 기타 사운드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고조

시켰다.

콘셉트 사진 속 여자친구는 교복을 벗고 시크한 매력을 발산했다. 트렌디한 헤어컬러 염색으로 더욱 멋지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살린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쏘스뮤직 측은 "또 다른 여자친구의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다. 여자친구만의 기본 정서는 지키는 선에서 다양한 변주가 시작됐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자친구는 오는 3월 6일 타이틀곡 '핑거팁(FINGERTIP)'을 포함, 새 미니 앨범 '디 어웨이크닝 (THE AWAKENING)'을 발표 후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spinoff@news1.kr



## '보통사람'...손현주X장혁 뜨거운 연기 에너지

###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특별한 시대" "시대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사건을 만든다"

(서울=뉴스스타) 장아름 기자 = 영화 '보통사람'이 개봉일을 확정하며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메인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오는 3월23일 개봉하는 '보통사람'은 1980년대, 보통의 삶을 살아가던 강력계 형사 성진이 나라가 주목하는 연쇄 살인사건에 휘말리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서로 노려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는 성진(손현주 분)과 규남(장혁 분)의 모습이 담겨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낸다. 독보적 존재감의 두 배우 손현주와 장혁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팽팽한 기운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함은 물론, 두 명배우가 선보일 폭발적인 열연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올린다.

여기에 "평범하지 않았던 시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이라는 카피가 더해지며, 격동의 시기 1980년대를 배경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보통의 인물들이 펼쳐낼 이야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함께 공개된 '보통사람'의 메인 예고편은 1987

년 봄, 가족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강력계 형사 성진과 상식이 통하지 않던 시대에 진실을 쫓는 기자 재진(김상호)의 모습, 그리고 이 둘이 동네 선술집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유쾌하게 펼쳐져 흥미를 자극한다.

그러나 이내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특별한 시대"라는 카피와 함께 분위기가 반전되며, 여론몰이용 뉴스를 조작하려는 냉혈한 안기부 실장 규남이 성진과 은밀하게 접선, 그에게 안기부의 공작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모습이 이어진다.

"시대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사건을 만든다"는 의미심장한 카피에 이어 가족을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한 성진, 그리고 성진이 휘말린 공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재진의 절박한 모습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이라는 카피와 함께 대규모의 군중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이어져 '보통사람'이 전할 뜨거운 울림과 시대를 관통하는 공감을 예고한다.

aluem\_chang@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7년 2월 20일 ~ 2017년 2월 26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33.3%
2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6.0%
3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24.4%
4	SBS	월화드라마(피고인)	21.8%
5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20.9%
6	KBS2	수목드라마(김과장)	17.5%
7	KBS1	KBS9시뉴스	16.6%
8	KBS2	해피선데이	13.9%
9	SBS	K팝스타더라스트찬스	13.8%
10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13.6%

##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2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3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4	KBS2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5	MBC	일일연속극(행복을 주는 사람)
6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7	SBS	일일드라마(사랑은방울방울)
8	SBS	월화드라마(피고인)
9	MBC	월화특별기획(역적백성을훔친도적)
10	KBS2	수목드라마(김과장)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KNOCK KNOCK	트와이스
02	비가와 (Rain)	소유, 백현
03	Rookie	레드벨벳
04	YESTERDAY	블락비
05	노래	Zion.T
06	봄날	방탄소년단
07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08	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
09	에라 모르겠다	BIGBANG
10	오빠야	신현희와김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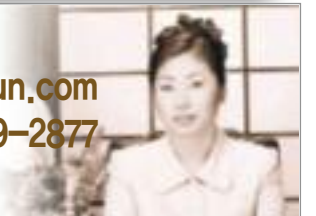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2		8					5	3
	9		3		1		7	
						1		6
3				8			2	
		1	2	7	3	4		
	7			4				1
5		9						
	2		7		6		1	
1	6					8		2

3월 5일 - 3월 11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행복을 주는 시간</b></p> <p>● 운수: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직접 해야 흥이 변해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유리한 조건이나 계약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고 수익이 따라주겠습니다. ● 애정: 서로의 대한 애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행복을 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6, 10일 길일. 5, 8일 주의.</p>	<p><b>소띠   서남쪽에 도와주는 기운</b></p> <p>● 운수: 생활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니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제약이 있어서 중단되거나 끌어오던 상황이 바뀌면서 발전이 기대됩니다. ● 금전: 서남쪽에 도와주는 기운이 있으니 방향을 잘 활용하면 귀인을 만나고 금전적으로도 회복되어갑니다. ● 애정: 위기에 있던 애정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고독한 상태에서도 벗어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7, 11일 길일. 6, 9일 주의.</p>	<p><b>범띠   상승하는 흐름으로</b></p> <p>● 운수: 여러 면에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거뜰하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때입니다. ● 애정: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5, 8일 길일. 7, 9일 주의.</p>
<p><b>토끼띠   착실하게 쌓아가야</b></p> <p>● 운수: 좁은 구멍으로 하늘을 보면 어느 한 부분만 보게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혀야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 금전: 하나에서부터 숫자세기를 시작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착실하게 쌓아가야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애정: 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른다고 합니다. 더 모를 일이 이성관계나 부부관계의 일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6, 9일 길일. 8, 11일 주의.</p>	<p><b>용띠   긍정적인 시야를</b></p> <p>● 운수: 비관론자는 빨간 신호등만을 보고 낙관론자는 어디든 푸른색 신호등만을 본다 합니다. 긍정적인 시야를 가져보세요. ● 금전: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은데 금전용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 애정: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일 있어서 혼자서 고민하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5, 10일 길일. 6, 9일 주의.</p>	<p><b>뱀띠   틈나는 대로 대화를</b></p> <p>● 운수: 흠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 때 그릇으로의 쓰임새는 그릇 가운데를 비움으로서 생각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비워두어야 합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늘어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깁니다. ● 애정: 가족과 틈나는 대로 대화를 나누세요. 밖에서 인정받아도 가정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균형 있는 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8, 11일 길일. 7, 10일 주의.</p>
<p><b>말띠   끝까지 밀어붙여야</b></p> <p>● 운수: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뜻밖의 변수도 있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고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한번 거절에 물러서지 말고 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결국에는 원하는 일을 해내고 재물도 얻게 될 것입니다. ● 애정: 기다리거나 참아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고통은 나누고 기쁨은 함께 하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7, 9일 길일. 5, 11일 주의.</p>	<p><b>양띠   아직은 때가 이르니</b></p> <p>● 운수: 무슨 일이든지 무리하지 말고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부터 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깨끗하게 받아들일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금전: 크게 들어오는 것도 없고 크게 지출할 일도 없이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 애정: 동쪽이나 북쪽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니 결혼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5, 8일 길일. 6, 11일 주의.</p>	<p><b>원숭이띠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b></p> <p>● 운수: 더 이상 스트레스가 쌓여서 탈이 나지 않도록 하세요. 몸과 마음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 금전: 갖고 싶은 대로 사들이다가 형편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돈쓰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 애정: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6, 10일 길일. 5, 7일 주의.</p>
<p><b>닭띠   경제운이 좋아지니</b></p> <p>● 운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감각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 금전: 경제운이 좋아지니 거래에 있어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온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 애정: 좋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주말에는 멋진 데이트도 기대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7, 10일 길일. 5, 11일 주의.</p>	<p><b>개띠   끈기를 가지고</b></p> <p>● 운수: 큰 발전도 없고 큰 퇴보도 없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금전: 지금은 동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닙니다. 투자와 매매와 관련된 일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때로는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실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5, 8일 길일. 6, 9일 주의.</p>	<p><b>돼지띠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것이</b></p> <p>● 운수: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과정이 힘들어도 인내심으로 견뎌야 합니다. ● 금전: 친구나 친 인척간에 금전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이 힘들 때 외면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니 너무 냉정하게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 애정: 어려움이나 슬픔을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5, 9일 길일. 7, 10일 주의.</p>



## 태연, 2시간만에 6개차트 1위.. '믿음탱' 통했다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이 신곡 발표 두 시간만에 6개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태연은 28일 정오 공개한 솔로곡 '파인(Fine)'으로 멜론, 벅스, 올레뮤직, 소리바다, 지니, 네이버 뮤직에서 1위를 차지했다. 태연의 곡 '파인'은 공개와 동시에 4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시간만에 6개 차트로 기세를 뽐냈다. 동시간대 공개된 박원과 수지의

곡 '기다리지 말아요'는 올레뮤직에서 2위, 멜론에서 8위 등 상위권에 랭크됐다. 태연의 곡 '파인'은 인트로부터 흘러나오는 어쿠스틱 기타 연주가 인상적인 곡으로, 전반부의 차분하게 절제된 보컬과 후반부의 거칠고 폭발적인 보컬이 조화를 이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태연과 박원·수지의 동시간대 음원 발표는 가요계 화두였다. 태연은 지난해 'I' 등 솔로곡으로 믿

고 듣는다'는 수식어를 만들어냈고, 수지 역시 예소 '백현'과의 '드림'으로 음원차트 1위를 꺾은 바 있어 두 신곡에 대한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솔로곡에서 실력을 입증한 바 있는 태연이 기록적으로 승기를 잡은 가운데, 음원 차트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hmh1@news1.kr



## '집밥 백선생3' 윤두준 차세대 요색남 예약이요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집밥 백선생3' 윤두준이 요리에도 도전했다. 윤두준은 tvN 예능프로그램 '집밥 백선생3'에 새로운 제자로 합류, 넘치는 학구열로 차세대 요색남의 자리를 예약했다. 지난 21일 처음 방송된 '집밥 백선생3'에서 윤두준은 주방을 최초 공개했다. 그안에는 먹다 남은 치킨, 즉석밥 등 자취남의 면모를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근 요리에 흥미를 붙였다는 윤두준은 생애 첫 감자 요리에 도전, 엄마 전화 찬스까지 쓰며 열의를 불태웠지만 썰 새 없는 시식과 과한 양념에 감자조림은 감자 맛탕이 돼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28일 방송에서 윤두준은 본격적인 첫 수업에 돌입, 김치볶음밥을 주제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요리를 시작했다. 윤두준은 통조림 햄과 백선생의 과거를 활용한 김치볶음밥을 완성, 의외의 요리 솜씨를 뽐냈다. 또 윤두준은 백선생의 요리 레시피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실감 나는 리액션과 군침이 절로 나는 먹방을 선사했다. 서툴지만 요리에 대한 학구열을 보여주는 등 먹방돌과 요색돌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을 예고했다. '집밥 백선생3'는 매주 화요일 9시 40분에 방송된다.

hjk0706@news1.kr

## 방탄소년단, 美 '빌보드200' 151위..최초 6회 진입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6회 진입 기록을 세웠다. 27일(현지 시각)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2017년 3월 11일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유 네버

윙크 얼론(YOU NEVER WALK ALONE)'은 '빌보드 200' 151위를 차지했다. 지난주 61위 진입에 이어 2주 연속 차트 유지 기록이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2015년 12월 '화양연화 pt.2' 171위, 2016년 5월 '화양연화 영 포에버(Young For-

ever)' 107위, 10월 '윙스(WINGS)' 26위와 106위, 2017년 2월 '유 네버 윙크 얼론(YOU NEVER WALK ALONE)' 61위와 151위 등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총 6회 이름을 올리는 기록을 세웠다.

hmh1@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adislaw St. 10 min / Newton St.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OTK 김원테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AB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래 가족' 이요원에 정준원까지, 리얼 공감 코미디

(서울=뉴스스타) 장아름 기자 = '그래, 가족'이 유쾌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가족 이야기로 웃음과 감동을 모두 안겼다. 배우들의 열연과 각 캐릭터가 돋보이는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얹히면서 휴먼 가족 코미디 영화가 완성됐다.

'그래, 가족'은 핏줄이고 뭐고 모른 척 살아오던 삼 남매에게 막내 동생이 예고 없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치열한 가족의 탄생을 그리는 영화다. 배우 이요원, 정만식, 이숨, 정준원 등이 출연한다.

특히 '그래, 가족'에서 이요원은 까칠하지만 점점 가족과 가까워지는 기자이자 둘째 역할로도 눈길을 끈다. 그는 "초반에 굉장히 까칠하고 나빠 보이는 역할이긴 하지만 집안이 굉장히 지지분하고 치우지 않는 부분에서 인간적인 면이 나온 것 같다. 차갑게 대하지만 마음 한 칸이 쓰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감독님 말씀처럼 저희 영화는 막둥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준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너무 잘 해줬다"고 칭찬했다.

이요원은 '그래, 가족'만의 차별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차별점은 뻔한 것"이라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다른 가족영화는 특별한 상황과 사건이 있다"며 "그런데 저희 영화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그린다. 돈 때문에 싸우고 갈라서고 뻔한 상황들이 더 공감되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도 내 가족, 형제 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aluem\_chang@news1.kr



### 티보플레이 2월 4째주 시청률 BEST10

1	MBC	불어라 미풍아
2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3	KBS	다시 첫사랑
4	K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5	MBC	행복을 주는 사람
6	KBS	빛나라 은수
7	SBS	사랑은 방울방울
8	SBS	피고인
9	MBC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10	KBS	김과장

### 티보플레이 2월 4째주 신규 방송

1	그래, 가족	이요원
---	--------	-----

### 티보플레이 2월 4째주 최신 영화

1	그래, 가족	이요원
---	--------	-----

## '김과장'을 보면 속이 뱅 뚫리는 남궁민표 '사이다'

(서울=뉴스스타) 김나희 기자 = 배우 남궁민이 '사이다 어록'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남궁민은 최근 방송 중인 KBS2 수목드라마 '김과장'(극본 박재범/연출 이재훈 최윤석)에서 비상한 두뇌와 돈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 그리고 현란한 언변까지 갖춘 김성룡 역으로 분해 열연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그는 더 큰 뺨뺨을 노리고 들어온 TQ그룹에서 얼떨결에 의인으로 불리면서 뺨뺨 대신 도리어 사건 사고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으로 활약 중이다. 무엇보다 남궁민이 김성룡 과장으로 완벽 빙의, 매회 쏟아내는 김과장 표 대사들이 인방극장에 통쾌한 웃음과 잔잔한 여운을 안겨주고 있다. 현실 사회를 고스란히 반영한 생동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 속에서 위트 있는 박재범 작가의 필력과 남궁민의 탄탄한 연기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는 반응이다.

nahee126@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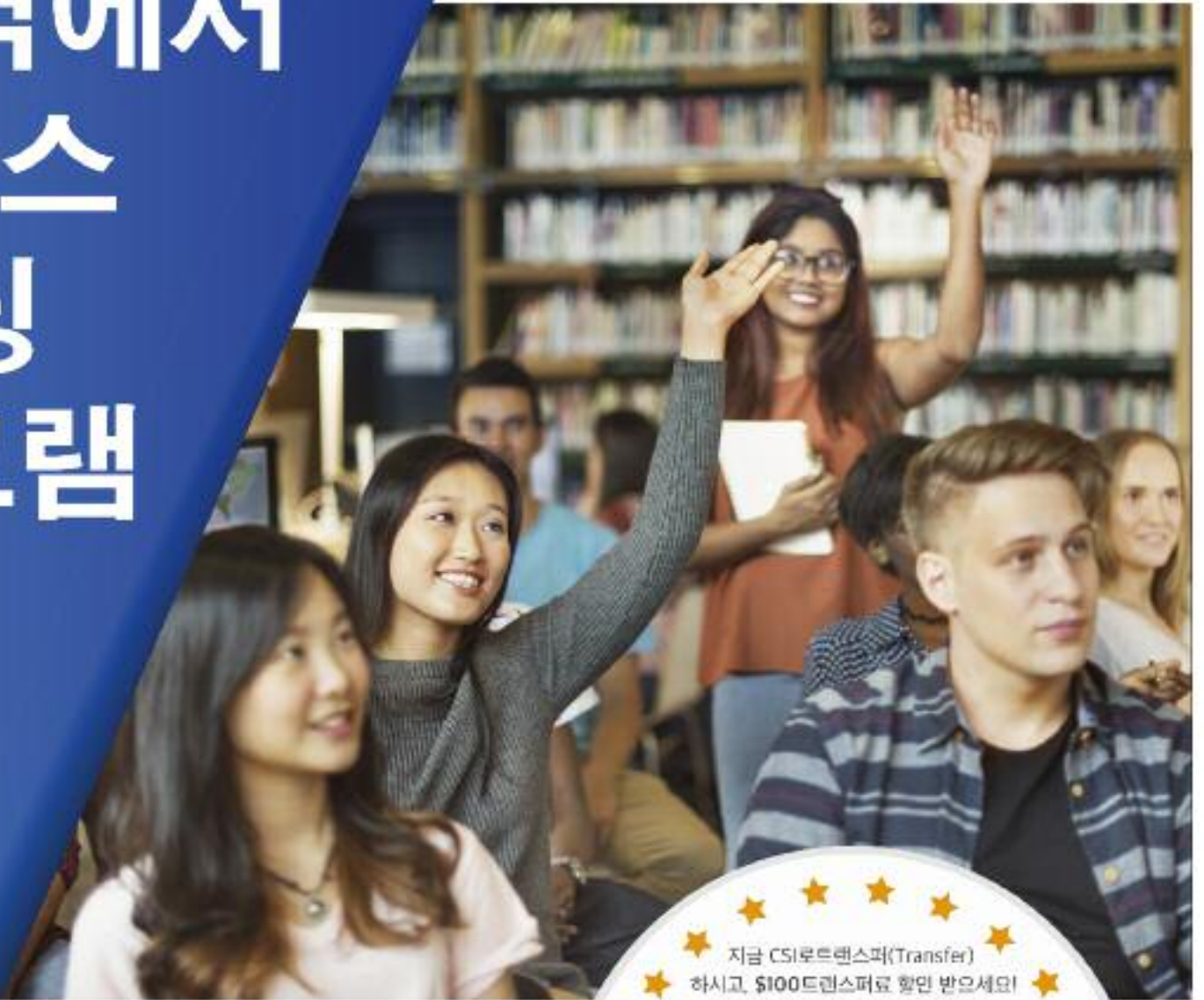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향집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 \$39.99

# 보스턴과 서버브 지역에서 ESL과 스킬 빌딩 프로그램

888.848.8260  
INTERNATIONAL@CSINOW.COM



CSI 는 모든 타입의 인터내셔널 학생 등록을 환영합니다

- 미국의 대학 또는 다른 언어 학교에서 트랜스퍼 가능
- 다른 주에서 일리노이 주 학교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친구들이 한국에서 직접 신청 가능

지금 CSI로트랜스퍼(Transfer) 하시고 \$100트랜스퍼료 할인 받으세요!

**PROMO CODE**  
**NPBK3**

Use Promo Code to Apply Online CSINOW.EDU  
CSINOW.EDU에서신청하실때 프로모션 코드 NPBK3를사용하십시오.

**\$100 OFF\***  
Transfer Fee

\*Promotional offer valid only for students who enroll and start classes for spring 2017 intake.

## English as Second Language (ESL)

33 주/ 강의 + 랩

- 초급 ESL
- 중급 ESL
- 고급 ESL

**\$3,900** | Per\*  
Year

\*학비에는 교과서와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카데미 Academic ESL

33 주/ 강의 + 랩

- 글쓰기
- 문학
- 대화

**\$4,200** | Per\*  
Year

\*학비에는 교과서와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스킬 빌딩 Skill Building

44 주/ 강의 + 학외연수

- 고객 서비스
- 전문 서비스직
- 전문 비서직
- 스몰 비즈니스 관리
- 세일 & 마케팅 전문

**\$5,100** | Per\*  
Year

\*학비에는 교과서와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CSINOW.EDU

Computer Systems Institute (CSI)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licensed by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Division of Professional Licensure, Office of Private Occupational School Education. CSI is accredited by the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 to award certificates. ACICS is recognized by the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For more on accreditation and why it matters for you, check out the Accreditation page at <http://www.csinow.edu/csi-advantages/accreditation/>. CSI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s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Students enrolled in ESL programs are not eligible for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or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work authorization. Programs vary by loc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gram graduation rate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 Effective: 02/01/2017 v-MA

# 신영의 세상 스케치

58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나의 땅끝은 어디??

모두가 생김새만큼이나 성격도 다르다. 그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믿는 믿음에서 보자면 성격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 어느 사람은 유독 시끌시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조용히 자신만의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은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나와 다르기에 이상하게 여겨질 뿐이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믿는 신이 최고이듯 또 다른 어떤 이가 믿는 신(神) 또한 최고인 까닭이다. 그저 각자가 서로 존중해줄 수 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내가 믿는 나의 신(神)으로 나 자신이 넉넉하고 충만하여 나눌 수 있다면 최고이다.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된다. 사순절(Lent)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을 시작으로 하여,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이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회상하며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습관대로 가던 마음과 삶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참회의 기간으로 삼는다.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

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 온 땅의 만물들이 생명을 움트며 창조주의 리듬 속에 거하는 이 계절,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께로 마음과 삶과 전 존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은 때로 방향하고 갈등하며 화합하지 못하고 독단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몰랐어도 지난 일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 혼자 여기까지 걸어 오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 때는 나를 위로해줄 신(神)을 찾아 의지하고 매달리지만, 무엇인가 쉬운 길로 가게 되면 어리석게도 다시 또 내 멋대로의 삶의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가 내게도 있었다.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선교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지낼 때가 있었다. 그렇게 시작해 현대 문명과 동떨어진 오지의 선교여

행도 몇 번 다녀오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나와 동시대에 사는 너 무도 다른 이들과 마주하며 '신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하며 얼마나 물음을 던졌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반복하길 몇 번 어느새 나 편안한데로 믿고 생활하며 지내길 또 얼마였는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것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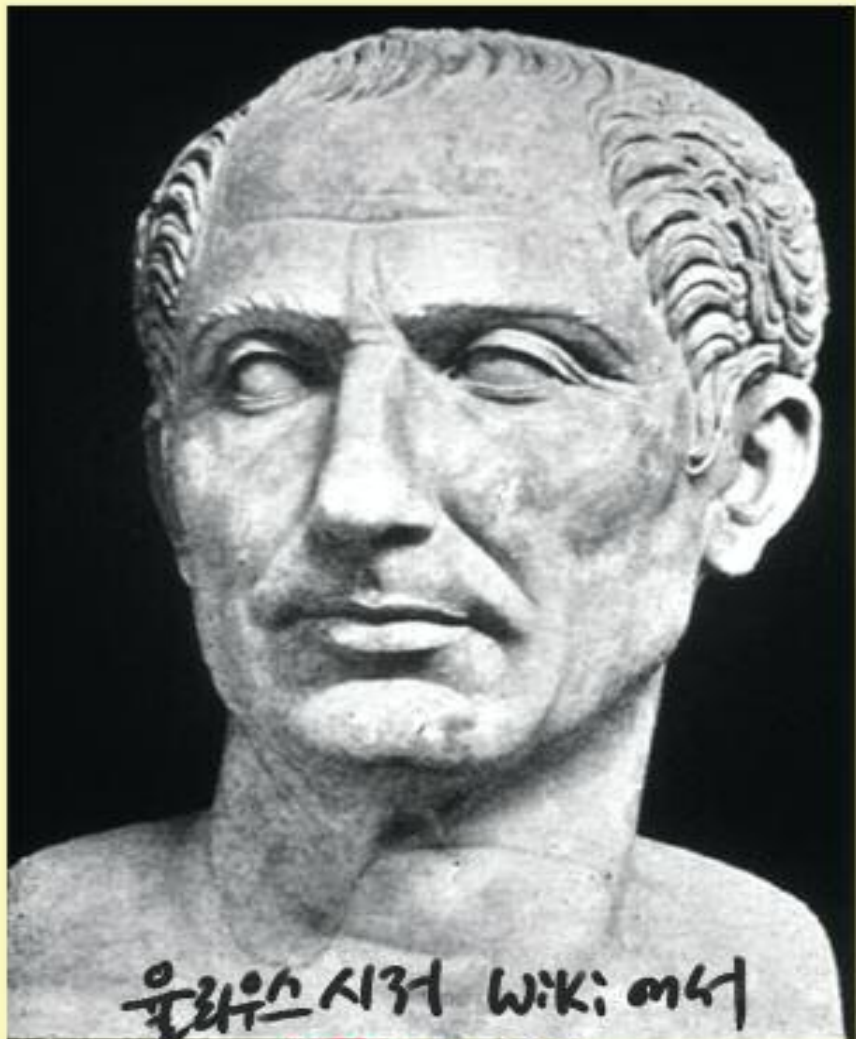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멀리에 있는 이들에게만 달려가고 싶었던 내게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너무도 내가 족에게 소홀히 대했던 내가 내 마음의 거울에 그대로 비추는 것이었다. 그 후 선교에 대한 열정은 조금씩 식기 시작했다. 우선 내 가족에게 편안한 아내와 따뜻한 엄마가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다.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조금씩 안으로 차들어 오기 시작했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믿음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나의 신(神)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계셨다. 멀리멀리 도망치려는 나를 지치지 않을 만큼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내 마음대로 달아나려는 나를 막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은 늘 곁에서 지켜보시며 스스로 발길을 돌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결국, 도망치던 발걸음을 돌려 돌아오는 길에 그분은 묵묵히 함께 걸어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다. 너무도 쉬운 말 그러나 너무도 어려운 참사랑 말이다.

옛그제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나의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신앙의 땅 끝'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목사님이 풀어주시던 그 땅 끝은 거리상의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내가 미워하며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들과의 관계가 '나의 땅 끝'이 아니었냐는 말씀이 내 마음에 어찌 이리도 오래 남아 나를 묵상 가운데로 안내하던지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오늘(3월 1일)은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을 맞게 된다. 우리는 모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율리우스 시커 Wiki에서

2017.2

## 한담객설閑談客說: 브루투스여, 너마저 날?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노래제목이다. 요샌 '배신 때린다' 고 자주 말하는 모양이다.

정치판만큼 배신이 빛을 내는 곳도 없지 않다. 로마시대이다. 시저가 브루투스의 칼에 찔릴 적이다. '브루투스여, 너마저 날?' 브루투스의 변명이 이어진다. '시저보다 로마를 더 사랑했노라' 말들이 처절하고 칼날처럼 날카롭다. 차라리 연극대사인 양 하다.

두어 해 전이다. 한국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의견이 달랐던 모양이다.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라 했다. 쓴 웃음이 나왔는데, 결국 여당 원내대표는 그 자리를 물러났다. 그 대표도 한때는 대통령 측근이라 했다. 대통령도 섭섭했을 테지만,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향해 '배신 때린' 것 처럼 보인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가? 역시 정치판에서 배신은 식은 죽 먹기인 모양이다.

한국 대통령에게 우산까지 받쳐주던 정치인이 있다. 그 정치인은 일찍이 대통령과 갈라섰다. 그녀가 한국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한 것 같지는 않다. 정치적으로 가야하는 길이 달랐던가? 아니면 맺힌 게 많아 그런가? 그녀가 이제 세상을 다시 만난 모양 시끄럽다. 그 사람은 친한 친구 글을 빼돌려 제 책임양 썼다는 사람이다. 행동거지가 깔끔해 보이

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유난히 배신背信알레르기가 있는듯 싶다. 어려서 부터 지조를 익혔고, 화해보다는 척질을 우선시 해서 그런가. 아니면 불사이군不事二君을 귀에 딱지 앉게 들어서 그런가. 조용필의 노래 가사이다.

'너를 용서 않으니/내가 괴로우 안 되겠다. 나의 용서는 너를 잊는것/그대를 이제는 내가 보낸다.'

배신은 쉽다. 멋진 배신은 눈물겹다. 그나저나 내가 역겹고 싫어서 안되겠다. 잊어야 겠고 보아야 겠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 계시록 3:8)

1. 이 말은 브루투스의 말이 아니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 대해 했던 말이다. 세익스피어가 인용했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질문을 받았다. 플라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플라톤을 사랑한다. 그러나, 진리를 더 사랑한다.' 역시 수사학의 대가 답다.
2. 불사이군不事二君: (네이버) 두임금을 섬기지 아니함.

배신자背信者. 옛적 가수 배호가 부른거다. 낮은 목소리에 잔잔히 흘렀다. 비내리는 명동거리에 어울릴 듯 하다. '더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너

혼자 미련없이/돌아서서 가는가/배신자여 배신자여/사랑의 배신자여.' 배신의 역사가 깊은 곳은 남여간의 사랑일 수있다. 배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



**2017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3.5 inch Super LCD Cluster Display, 10.2 inch touch screen

**MSRP, As shown, MS216295**



LEASE \$69/mo.	MSRP \$15,631	FINANCE 0.9% APR
-------------------	------------------	---------------------

**2016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MSRP, As shown, MS209995**



LEASE \$89/mo.	MSRP \$13,290	FINANCE 0% APR
-------------------	------------------	-------------------

**2016 Hyundai Accent GLS Sedan**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16 inch alloy wheels, 180W XM Radio, 17 inch alloy wheels, 160W XM Radio, 17 inch alloy wheels, 160W XM Radio, 17 inch alloy wheels

**MSRP, As shown, MS211525**



LEASE \$119/mo.	MSRP \$12,798	FINANCE 0% APR
--------------------	------------------	-------------------

**2017 Genesis G80 3.8**

**This vehicle features:**  
Premium 19 inch alloy wheels, 19 inch alloy wheels, 19 inch alloy wheels, 19 inch alloy wheels

**MSRP, As shown, MS211995**



LEASE \$419/mo.	MSRP \$45,500	FINANCE 1.9%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port**

**This vehicle features:**  
Seating surface Audio Control, Android Auto, Bluetooth, 16 inch alloy wheels, Fog Light

**MSRP, As shown, MS216295**



LEASE \$129/mo.	MSRP \$23,527	FINANCE 0.9% APR
--------------------	------------------	---------------------

**2017 Hyundai Tucson SE**

**This vehicle features:**  
Driving Blind Spot Warning, 8 inch color touchscreen, Android Auto, Bluetooth, 17 inch alloy wheels

**MSRP, As shown, MS216295**



LEASE \$175/mo.	MSRP \$20,248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onata SE**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17 inch alloy wheels, 17 inch alloy wheels, 17 inch alloy wheels

**MSRP, As shown, MS216295**



LEASE \$129/mo.	MSRP \$18,197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E**

**This vehicle features:**  
Seating surface Audio Control, Android Auto, Bluetooth, 16 inch alloy wheels, Fog Light

**MSRP, As shown, MS216295**



LEASE \$159/mo.	MSRP \$29,003	FINANCE 0% APR
--------------------	------------------	-------------------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90 monthly payments of \$17.46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driveprime.com**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옥성득**  
(Rev. Dr. Sung-Deuk Oak)

서울대 사학과  
장신대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  
보스톤 대학교 교회사 박사  
현재, UCLA 한국학과 석좌교수

## 삼일절과 기독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밝힌 대로 3.1운동은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한 첫 근대 민족운동이다. 2년 후 100주년을 맞아 삼일독립운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높다. 운동의 한 핵심 세력이었던 기독교에서도 올해부터 심도 있는 논문들이 나오고 새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다. 두 가지 문제만 살펴보자. 첫째, 왜 상당수 엘리트 기독교인들은 삼일운동에 반대했는가? 둘째, 삼일운동은 기독교 운동이었는가?

### 삼일운동에 대한 반대 논거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주류 언론은 3월 20일자 사설에서부터 한국의 독립을 반대했다. 한국 지도자들이 행정 경험이 없어 자치는 불가능하며, 무정부 상태보다 질서유지가 더 낫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무정부 상태는 지역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제국주의 논리였다. "현재로서는 본국인 자치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개화된 외부자가 그 나라를 계속 다스리는 것이 최선이다."고 보았다. 일본의 '조선 통치' 결과 조선이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전의 결과였다. 미국은 필리핀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아시아인의 독립 욕구를 억압해야 했다. 오리엔탈리즘과 식민사관이 만든 조선 정체성론과 반도국가론이 공고화된 결과였다. 당시 한국의 성공회나 천주교나 일부 감리회 지도자들도 동일한 입장이었다. 윤치호와 최병헌 목사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다. 성공회 트롤로프 주교와 천주교의 뮈텔 주교는 한국의 독립운동에 반대하고 일본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신임 총독 사토에게 폭탄을 던진 강우규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비난했으며, 총독에게 협조를 약속했다.

### 삼일운동이 기독교운동이 되려면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삼일운동을 일반 민족운동을 넘어 기독교운동으로 볼 수 있을까? 곧 참여자들은 한국인으로만 참여했는가 아니면 한국인 기독교인으로 참여했는가?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답해야 기독교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첫째, 개신교인이 운동의 주축과 핵심 세력이었는가? 당시 개신교인은 인구의 1.5%인 약 24만 명이였다. 독립선언서 서명자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이였다. 6월까지 투옥된 자 9,458명 중 개신교인은

2,087명으로 중간 지도자층의 22%를 차지했다. 여성 투옥자는 거의 개신교인이었다. 9월 평양에서 장로회 총회가 열렸을 때, 장로교인 사망 52명, 투옥자 3,804명이었으며, 목사와 장로 1,024명 가운데 13%인 134명(총회장 김선두 목사, 길선주 목사 포함)이 감옥에 있었다. 만약 지금 목사와 장로의 10%가 감옥에 갈 각오로 사회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둘째, 교회의 조직적 참여의 문제이다. 개신교는 당파성을 넘어 천도교와 불교와 함께 연합하고, 전국 교회와 기관 연락망을 활용하여 선교사나 일본 경찰 모르게 조직적으로 참여했다. 교회나 병원의 등사실은 선언서를 인쇄했고, 청년들과 여자들은 이를 운반, 배포했다. 천도교가 있는 마을에서는 함께, 없는 도시에서는 교회 자체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 만세를 외쳤다.

셋째, 운동의 이념과 방법이다. 기독교 정신으로 진행했는가? 삼일운동에서 민족자결도 중요하지만 평화적 무저항주의가 귀하다. 천도교는 "개 같은 왜놈들 우리의 원수이다. 한 칼로 박멸내자"는 복수와 무력 저항을 지지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요구로 비폭력

으로 시작되었다. 불의에 대항하지만 증오가 아닌 사랑이 승리한다고 보는 기독교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믿는 세상에서 바보가 되지만 최후의 승자가 된다.

넷째,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협력 문제이다. 기독교운동이라고 해서 민족의 독립과 통일과 같은 거국적 운동이라면 천도교와 불교 세력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기독교인이냐 한국인이냐는 분리될 수 없다. 한국이 기독교를 가지고, 정의, 평화, 자유로운 통일 한국으로 인해 남북의 한국인이 살고 세계 기독교가 살 것이다. 이것이 3.1운동 정신의 계승이요, 꿈이다.

삼일운동과 이후 이어진 독립 운동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이 외세의 도움으로 '도둑같이' 왔기에 나라는 분단되고 민족의 모습은 심화되었다. 삼일운동은 우리 민족이 내면의 힘을 자각하고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 하나 된 사건이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어난 한국교회가 하늘이 준 생명의 힘으로 펼쳐 일어나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외친 혁명이었다. 교회는 그 용감한 정의감을 회복하고 민족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전통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68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含) (20)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사다함은 약관 1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사우를 결의한 친구이자 자신이 풍월주로서 이끄는 화랑도의 낭도인 무관량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해하다가 7일 만에 죽었다. 그의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화랑의 무리는 유능한 지도자를 잃게되었다. 그래서 대다수의 낭도들은 4세 풍월주를 지낸 이화랑을 다시 추대하여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이화랑은 자신은 지소태후의 사위라면서 풍월주의 지위 복립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화랑은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의 고조할아버지이다. 그리고 1세 풍월주를 역임한 위화랑의 아들이다. 또한 이화랑은 지소태후의 사위일뿐만 아니라 지소의 침신으로 그들은 만호낭주를 낳았다. 이 만호낭주가 동륜태자와 혼인하여 26대 진평왕과 차남 진정갈문왕 김백반 그리고 삼남 진안갈문왕 김국반을 낳았다. 즉 지소태후 입장에서는 손자와 딸이 결혼하였다. 신국 신라의 골품을 잇기위한 혼인 풍습이었다. 이화랑은 어릴때부터 시문(詩文)을 잘했다. 그는 화랑도(花郎徒)로서 갖추어야 할 무예실력 역시 결출하였으며 외모도 수려하였다. 그래서 12살의 어린 나이에도 능히 화랑도의 2인자인 부제의 자리에 올라 그 임무

를 다하고 3세 풍월주 모랑공이 일찍 죽으면서 그의 뒤를 이어 4세 풍월주가 되었다. 젊고 잘생기고 문무를 겸비한 이화랑은 풍월주가 되는데 손색이 없었기에 많은 낭도들이 그를 따랐다. 아울러 궁궐의 많은 공주들도 그를 흠모하였으며 그의 재기를 배우길 원했다. 특히 지소태후(진흥왕의 어머니)의 딸들인 숙명, 황화, 송화 등은 항상 가까이서 지내면서 시문과 화랑도(花郎道)를 배웠다. 숙명은 지소태후와 태종공(이사부) 사이에서 태어났고, 황화와 송화는 지소태후와 박영실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다. 지소태후는 삼촌인 입종과 결혼하여 진흥왕을 낳았고, 입종이 죽은 후 여러명의 남편을 두었으며 또한 많은 침신(寢臣)들도 있었다.

한편 많은 낭도들이 이화랑을 차기 풍월주에 복립할 것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다함의 복안은 달랐다. 그는 세종을 가장 접합한 인물로 봤으며 모든 낭도들이 사다함의 의견을 따라서 세종을 6세 풍월주로 세웠다. 세종(世宗) (~ 588년, 노리부(魯里夫),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는 가야 왕자이다. 구형왕의 장남으로 노리부는 이름의 음을 표기한 것이고, 세종은 이름의 뜻을 표기한 것이다. 노종(奴宗, 노부(奴夫), 내부(內夫), 내례부(內禮夫)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532년(법흥왕 19년)에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구해왕 또는 구충왕이

라고도 표기되어 있다)이 가족과 함께 신라에 귀순하였다.194) 그리고 그들은 신라의 진골 귀족으로 편입되어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다음은 화랑세기 내용의 세종과 노리부, 삼국사기 처럼 동일인이 아니라 세종과 노리부는 다른 사람으로 등장한다. 노리부는 진흥왕의 비인 사도왕후의 오라비이다. 사도의 부모는 박영실과 옥진인데, 노리부의 부모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즉 사도와 동부동모인지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576년 진흥왕이 죽자 사도왕후는 미실과 손잡고 진지왕을 즉위시켰다. 그리고 거칠부로 하여금 상대등을 삼아 정국을 운영했지만 실권은 왕후의 오라비 노리부가 잡고 있었다.

그리고 세종(世宗)은 태종(이사부)과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태후 사이에서 태어났다. 즉 진흥왕과는 이부동모 형제이다. 그리고 진흥왕의 왕비였다가 궁을 도망나와 이화랑과 혼인한 숙명과는 동부동모의 친남매이다. 세종은 미실을 아내로 맞아드려 아들 둘을 두었다. 그리고 세종은 6세 풍월주로서 화랑도의 무리를 이끌었다(두 사서가 세종/노리부에 관하여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혈통의 뿌리부터 다르며 또한 후손들도 다르다. 과연 신라인이 쓴 신라의 기록이 옳을까? 약 500년 후에 완성된

고려인이 쓴 신라의 기록이 옳을까? 화랑세기의 원본이 발견될 때까지는 아마도 풀리지 않을 것이다).

194) 삼국사기(신라본기 법흥왕 19년, 532년)에는 금관국의 임금 김구해가 왕비와 세아들인 장남 노종(奴宗, 중남 무덕(武德), 계남(季男) 무력(武力)과 함께 국고의 보물을 가지고 항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계남은 막내아들을 뜻한다. 구형왕의 막내아들 김무력의 손자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크게 공헌한 김유신이다.

그리고 삼국유사(가락국편)에는 두 가지 설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 즉 구형왕의 항복 연도는 532년(법흥왕19년)과 562년에 진흥왕의 명으로 이사부가 가야정벌한 해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 562년 가야정벌 전쟁에는 사다함도 참전하였다. 누구보다 더 용감하게 싸워서 많은 전공을 올렸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웹사이트 (www.gch.go.kr)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 I' (1990), II(고찰, 2006)



# BOSTON NEHEMIAH INSTITUTE

BNI 평신도신학원은 지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성 있는 신학강사진들을 통해 지역의 한인 평신도들에게 성서신학을 포함한 체계적인 기본 신학과정을 제공합니다.

## 제2회 BNI 선교의 밤 공개강좌

### 한국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 1876-1910

(Multiple Origins of Korean Protestantism, 1876-1910)



**강사: 옥성득 교수**

(Rev. Dr. Sung-Deuk Oak)

옥 교수는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장신대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보스턴 대학교에서 교회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UCLA 한국학과 석좌교수로 있으며 다양한 저술활동과 강연으로 한국 근대사와 초기 기독교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ECC Chapel,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입시:**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7:00

강좌중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Babysitter가 제공되며, 강좌후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2017년도 봄학기 과목 편성표

Central클러스 :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North클러스 : 니시갯시할인교회 900 Main St, Reading, MA 01867

요일 및 시간	학사일정	장소	과목명	교수
월요일	3/13-4/17(5주)	Central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신앙	김성천
7:30-10pm	4/24-5/22(5주)	Central	교회, 하나님의 학교	김학수
화요일	3/14-4/18 (5주)	North	선교의 실제와 전망	함동강의
7:30-10pm	4/25-5/23(5주)	North	간격을 뛰어 넘는 말씀: 구약을 인용, 언급 그리고 echo하는 신약	안창선

\*고난 주간은 휴강됩니다.(4월10일과 11일)

\*선교의 실제와 전망은 함동 강의를 합니다. 박진수목사(Coordinator), 송원구목사, 이재주목사, 유경렬목사, 강택식목사, 이소우목사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 '내가 나를 지키는게 무슨 죄라고?'

드디어 대통령의 탄핵을 조사하는 특검 조사가 끝났다. 조사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난다 긴다하는 '난사람', '든 사람'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왜 위기 앞에서 하나같이 '두 가지'의 말,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반복했던 걸까? 이 말은 사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교묘하게 전담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여태껏 애지 중지 지켜온 '이고(Ego)'를 버린다는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다는 듯이 위기의 순간 자신보다 더 철저하게 복종해왔던 '상관'을 아주 당연한 듯 버렸다. 하지만 이 행동은 면밀히 말해서 용기 없는 진실을 끝내 보이는 '비겁한 배반'이다. 그들은 사실 상관과 같이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위기에 몰리자 하나같이 자신의 이고만을 지키려 자신은 그저 '높은 분'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 물론, 그들의 높은 분들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그들은 높은 분 앞에서 보여준 '충신'의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간신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자신의 이고를 지키려 '자기방어(Ego Defence)'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한대의 감정(Id)과 현실에 대항하는 이고(Ego), 살아가면서 따라야 하는 세상 법칙이(Super Ego) 있다. 가정교육, 종교, 도덕성, 사회가 요구하는 법칙을 말한다. 자아(Ego)는 이 두개의 마음의 구조 안에서 갈등한다. '조윤선'의 방어를 살펴보면 하자. 그녀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사법고시, 23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그 유명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콜롬비아 로스쿨, 36세에 정당 대변인,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

변인, 제 3대 여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문체부장관등을 걸치며 외모, 실력, 경력 무엇보다 빠지지 않던 성공의 아이콘이었다. 청문회에서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을 설득력있게 차분하게 방어했다. 그녀가 하는 말 장난에 국회의원과 많은 시민은 흥분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그녀의 태도에는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었다. 시종일관 꽃꽂이하고, 도도하고, 가끔씩 비웃는 듯한 미소와 한숨마저 지어가며 거짓말을 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박근혜 대통령과 닮은 점이 매우 많다. 첫 번째, 차분한 목소리톤으로 자신도 이해 못하는 말을 자기 생각처럼 기가막히게 이야기를 잘 하는 모습이다. 드러난 대로 최순실이 써 준 국정연설문을 폄 나게 읽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기생각이 없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의 민간인 최순실이 시키는대로 정사를 하다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청문회 중 조윤선이 시선을 아래로 두고 휴대폰 SNS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다. 그녀는 남편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남편이 시키는대로 "보고 받았나" 등 구체적 질문엔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상황상 더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미 큰 틀에서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한 나라의 장관이 위기가 오자 한국 유교의 부창부수(夫唱婦隨)의 미덕을 따라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조신한 아내가 된 것이다. 자신이 위기가 오자 자신의 이고를 방어하기위해 자신의 죄는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회가 요구하는 말 잘 들

는 어린아이, 순종하는 아내로 변했다. 위증죄로 감옥에 들어가게되자 김기춘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며 자신의 죄를 회피했다.

세 번째로, 조윤선과 박근혜 대통령의 부자유스러운 운기의 얼굴을 말한다. 보복스를 맞으면 얼굴의 근육을 마비시키므로 자신의 뇌 속의 감정의 회로가 변하여 자연스런 감정을 차단한다는 학설이 있다(Joshua Ian Davis, ect, Emotion, June 2010). 자본주의 시대의 새 흐름 루키즘(Lookism)을 부추기고 있다. 그들은 마치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듯 젊은 회춘의 미소가 있다 하지만 마치 로보트처럼 미소가 획일화되어있어, 그들의 미소는 왠지 부자연스럽고 경직되어 있다. 루키즘이란 우리말로로는 외모지상주의·외모차별주의를 말한다.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새파이어(William Safire)가 2000년 8월 인종·성별·종교·이념 등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차별 요소로 지목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외모(용모)가 개인간의 우열뿐 아니라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 또는 그러한 사회 풍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 루키즘은 남에게 보여주면서 오는 자기 도취, 나르시즘 쾌락에 빠지게 한다. 더 젊어지려, 더 예뻐지려 마약의 중독성을 갖게한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재력을 자랑하게한다. 나이를 거부하는 '퇴행(Regression)', 자기도취의 나르시스트 자아방어 인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이고를 지키는 '자기방어(Ego Defence)'가 단단한 것이 '튼튼한 자아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한결같이 세상이 부러워 할 만큼 권력, 재력이 막강한 '간신배'의 무리들이 무너지

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기가막히게 말을 잘하고, 스펙도 장난이 아니고, 이것저것 통달한 것이 많은 사람들로서 그동안 자신의 죄를 요리조리 잘 피해나가는 '자기방어'에 철저했다. 세상에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왔고 그렇게 이번에도 자신의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사랑받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했고, 말 잘듣지 않으면 외면당했고, 성공하지 않으면 무시당했고, 그러면서 돈과 권력이 그들이 사랑을 느끼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일을 아주 잘 하게되었다. 그 결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보다 자신보다 잘난 사람,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 관심받는 일에 집착하며 '자기방어'를 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분이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자신이 너무 훌륭하게 하는 자존감이 아닌 자기방어에 집착하는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이 부끄러운 진실을 보았다. 자존감이 아닌 자신의 자존심만을 지키려 하다보니 그분은 옳은 말을 해주는 충신보다 감언이설을 하는 간신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 교훈을 통해 나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훌륭하다고 나를 보듬어주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훌륭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푸근한 세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의 실수와 실패를 질책보다 먼저 보듬어주고, 어른인 우리 자신의 실패도 너그럽게 받아준다면 우리의 존재 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하다 인정해주는 공평하고 진실한 세상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무료 견적서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메인부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경백-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제 사업(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공 도장부 근무)
- Herb chamber 브레이크 콜라본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k, Toyota)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Calvin's auto body 운영
- 20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 Tel:978.664.2321, Fax:978.664.2314

E-mail:autobody.hk@gam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 앤젤라 엄

#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턴 아카데미는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 “2016-17 대학진학 트렌드”

지난 수년간 피로에 지친 입학사정관들은 숨 죽이면서 행여나 이번 시즌에는 읽고 평가해야 할 지원서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또다시 지원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만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증명이 되었다. 신입생 정원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어떤 때보다도 입학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상위 대학들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일종의 ‘입학 준비 경쟁’ 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펜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 올해 사상 최초로 4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했으며 다른 대학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 (6년 전 유펜 지원자 수는 31,662명이었다.) 하버드 역시 지난해보다 450명 더 되는 숫자인 39,494명이 지원하여 지원자 수 기록을 갱신하였다. 입학 경쟁이 덜 치열해지리라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

대학 진학상담 전문가(Admissions Counselor)인 나는 매년 연말이 되면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대학 정기 모집(Regular round) 마감에 맞추기 위해 그들의 대학 지원서에 과묵히 지낸다. 보통 1월 1일 아니면 15일이 정기모집 마감

일이기 때문이다. 보통 12월 중순에는 조기모집(Early round)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실망하고 충격을 받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우리 회사를 찾아 전화를 많이 걸어 오신다. 이들은 상당한 충격 속에 때로는 당황하여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요청한다. 동시에 왜 자기 자녀와 같은 “슈퍼스타” 를 컬럼비아(Columbia)나 유펜(U. Penn)에서 탈락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신다. 냉혹한 현실과 치열한 경쟁을 처음 직접 겪으면서 너무나 실망한 이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장 알고 싶어한다. 전문가로서 오랜 경험에 의하면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진학을 위한 확실한 전략과 계획의 부재이다. 흔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말한다. 기대가 지나치게 높고, 정확한 현실과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기대를 하면, 실망감이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반대로 기대치가 지나치게 낮으면 항상 능력보다 낮은 성과를 내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비결은 현실과 야망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잡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고, 경쟁자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으며, 진학 현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즉 자신이 어느 수준의 지원자이며, 강조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처한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담할 때면 나는 언제나 학생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혹은 그녀가 작성한 지원서를 검토한다. 보통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왜 그 학생이 탈락 혹은 보류가 되었는지를 파악해 낼 수 있다. 즉 그 학생이 제출한 지원서에서 약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약점들을 드러낸다:

- 지원서(application Form)가 조직적이지 못하다.
- 에세이(Essay) 주제가 지루하고 재미없거나 지원자를 효과적으로 소개하지 못한다.
- 과외활동(Activity Lists)의 내용이 체계가 없다.
- 전반적으로 대학 지원에 필요한 전략이나 일관성 있는 계획이 없다.

학생들 본인들은 지원서를 통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지원서류 전체를 관통하는 포괄적 전략도 부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인상적이고 개성 있는 지원자로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전술도 매우 모자란다.

대학 지원서는 몇 페이지에 불과하다. 이 제한된 공간 안에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포장해서 강조함으로써 입학사정관들이 자신을 뽑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이를 위한 어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은 재능과 인격을 갖춘 뛰어난 인간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단지 학점이나 시험 성적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대학 진학을 위한 뚜렷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과 독특한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에세이 주제도 정해야 하며, 지원서 완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짧은 분량의 지원서에 적히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중요하다.

이어지는 칼럼들을 통해 올해 조기지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올해 대학 입학사정관의 현황과 결과에 대한 예측을 통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75)

# 아이비(IVY) 학교의 투자

아이비(IVY League) 대학은 부모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입니다. 특히 한인 동포의 아이비 대학에 대한 열망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이비 대학에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 한가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은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는 자금(Endowment Fund)이 있습니다. 한 예로 하버드 대학의 운영자금은 약 \$36 Billion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은행에 저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주식전문가 혹은 주식 고수(?)가 투자를 잘해서 자금이 계속 불어나게 합니다. \*참고로 \$1 Billion은 \$1,000 Million입니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작년(2016) 유명대학의 투자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지수인 S&P 500 수익률은 12%로 상승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어떤 특정한 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했다면 유명 대학 투자 고수가 투자한 것보다 수익률이 14%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하버드와 같은 최고의 투자 전문가가 투자하기에 당연히 고소득을 창출 하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년 하버드 대학도 \$2 billion 손실로 마이너스 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관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5년 평균 수익률을 살펴봅시다. 하버드 대학의 수익률은 5.9%였고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8.9%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하버드 대학 수익률은 5.7% 그리고 주식에 60%와 채권에 40% 투자해서 투자 위험성을 훨씬 감소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6.9%로 하버드보다 더 높은 수익률입니다. (Harvard University Endowment Posts 2 Percent Loss on Investments, Economy, September 22, 2016)

미국에서 대학 운영자금이 가장 큰 40개 대학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학교가 무려 35개의 학교라는 발표입니다. (How Colleges Lost Billions to Hedge Funds in 2016

by Charlie Eaton, February 20, 2017,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대학 운영비 투자 수익률이 주식시장 수익률보다 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투자경비 때문입니다. 2015년 단 한 해 동안 투자경비로 나간 돈이 무려 \$2.5 Billion입니다. 이 숫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의 수익에 대해서 60센트가 투자비용으로 나갔다고 발표했습니다. (Endangered Endowments: How Hedge Funds Are Bankrupting Higher Education, Strong Economy for All Coalition)

투자하면 일반 투자자는 은근히 투자 대박(?)을 기대하며 좋은 투자가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유명 대학의 자금을 운용한 펀드매니저는 일반 투자자보다 똑똑하고 뛰어난 주식전문가임은 틀림없습니다. 자금력이나 정보력 등에서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성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투자자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주식의 도사(?)는 없다

고 필자가 자주 언급한 이유입니다.

간혹 어느 시점에 어떤 투자전문가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 투자자 모두가 특별하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허황한 희망일 뿐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최고의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비를 운영했던 투자 전문가 절반이 직업을 잃는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저조한 수익률 때문입니다. (Harvard Endowment to Lay Off Its Half Staff, WSJ, January 26, 2017)

미국 금융산업에선 투자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투자는 투자비용이 오히려 저렴합니다. 수익률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부터 인덱스 펀드 투자를 추천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투자비용과 수익률을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 2016년 세금신고 안내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5)

## - 인적공제(Exemption) -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이번주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항목인 인적공제(Exempt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적공제(Exemption)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일정액(2016년은 1인당 \$4,050)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Personal Exemption 이라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Dependency Exemption 이라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2명인 납세자는 2016년도 세금계산서 소득에서 \$16,200(= 4명 X \$4,050)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인 경우 소득이 일정금액(부부합산신고자 : \$311,300, 세대주신고자: \$285,350, 독신자 신고 : \$259,400, 부부 별도 신고자 : \$155,650)을 초과하면, 1인당 기본금액(\$4,050)이 일정비율로 삭감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아래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례1) 배우자가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 즉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 경우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 배우자를 둔 납세자는 아래의 세 가지 방법(Filing Status)에 의해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② 부부가 별도로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③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주로 신고(Head of Household).

위 세가지 방법 중 납세자가 배우자와 함께 부부합산신고를 하면 납세자는 당연히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와 세대주신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던 세대주로 신고하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미국 소득이 없을 것(No Gross Income for U.S. Tax Purposes)

둘째: 배우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것

셋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닐 것

위의 첫째 요건을 보면, '세법상 미국의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배우자의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미국의 소득이 아니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US

Source Income)만 세법상 미국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번 근로소득은 미국의 소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한국 소득이 있더라도 미국내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김한국씨는 대학원생인 27세 자녀(김하나)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한국씨는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부양가족(Dependent)'이란 ①'일정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와 ②'일정요건을 갖춘 친척 또는 동거인(Qualifying Relative)'을 말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양가족(Dependent)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Qualifying Child' 인지를 살펴보고, Qualifying Child가 아니면 다시 'Qualifying Relative'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1. Qualifying Child

Qualifying Child의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나이(Age)요건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규정은 자녀가 연도말에 19세 미만(학생인 경우 24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이어야 한다

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27세인 김하나양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나이제한에 걸려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Qualifying Relative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2. Qualifying Rel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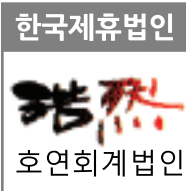
'Qualifying Relative'가 되기 위해서는

- ① Qualifying Child가 아니어야 하며,
- ② 세대구성원(Member of Household) 이거나 납세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Relationship)에 있어야 하며,
- ③ 총소득(Gross Income)이 \$4,050이하이어야 하며
- ④ 공제대상자 스스로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 ⑤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위의 'Qualifying Relative'요건을 보면 'Qualifying Child'요건과는 달리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27세인 김하나양도 부양가족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김하나양이 위에서 정한 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24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i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7년 3월 첫째주)**

●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 (Form I-130)

최근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다른 가족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신청하는 신청서들이 잘못된 이민국 사무실로 배달되고 있다고 이민국이 이민변호사 협회에 알려왔습니다. 신청주소 (Filing Address)는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 어떤 신청서든 이민국에 신청하는 서류들은 반드시 신청 전에 신청주소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트럼프 행정명령 Update

여러차례 소개드렸듯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과 관련된 행정명령들이 반이민적 내용을 담고있고 수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들면, 주와 로컬 경찰들에게 연방 법인 이민법 위반여부를 조사/체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급행 추방의 범위를 현행보다 더 넓혀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정당한 재판없이 추방될 수 있게 하는 것등 이민자들을 불안케 하는 점들이 많이 포함됐습니

다. 물론 이번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예상보다 큼니다. 국회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행정명령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행정명령이 이러한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이민세력인 반이민세력인 이번 행정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해석해서 한쪽은 반이민 여론을 부추기고 있고 다른 한쪽은 행정명령을 비난하고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언론들의 과장보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또는 당분간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보다 냉정히 이번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분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미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영주권자,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소지자 모두 어떠한 불이익은 없을겁니다. 몇몇 언론들이 영주권자들의 해외여행의 어려움과 제한을 보도하

고 있지만 모두 과장보도이고 실제로 단지 영주권자란 이유로 입국이 거절된 사례는 단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입국이 거절되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들 모두 행정명령과는 상관없이 원래 현행법상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이었습니다. 예를들어, 7개월이상 해외에 머무르다 입국한 경우,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었던 경우등 모두 행정명령 이전에 입국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들이었지만 마치 이번 행정명령 때문에 입국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신분유지에 실패하신 분들도 이번 행정명령이 목표한 계층이 아닙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빠대는 분명히 범죄와 관련된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분유지에 실패하셨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계신다면 크게 불안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이민국의 단속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과 관련된 비자들 (H-1B, E, L

비자들)을 없애거나 대대적인 손질을 한다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한인들은 손해볼 것이 없을겁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 이러한 비자들을 악이용하는 세력들을 몰아내겠다는 겁니다. 페이퍼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를 이용해 H 또는 L 비자를 신청하고, 이민국 내부자를 매수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짜 케이스들이 승인됐습니까? H 같은 경우엔 이러한 가짜 케이스들 때문에 추첨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고 학교 졸업해서 어렵게 취직했지만 H 비자를 못받아 꿈도 못퍼본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행정명령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게되면 오히려 한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분명, 이민사회에는 반감지 않은 시기임을 분명하지만 이번 이민관련 행정명령들이 우리 이민사회에도 득이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인사회도 역량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 H-1B 법률 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마케팅 (Marketing) 관련 전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기업체의 성공은 시장조사와 마케팅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닐만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늘날 마케팅 전문가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2017년도 US News 랭킹에 의하면 시장조사분석가는 최고의 비즈니스 직종 순위 중 12위를 차지했고, 2008년부터 2018년 기간동안 마케팅 관련 직종은 13%, 시장조사분석가는 28%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노동국 예측도 나와있습니다.

미국 대학 및 대학원에서 비즈니스나 마케팅 관련 학위를 취득하는 한국인 유학생들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경력을 쌓기를 원하시는 유학생들의 경우 H-1B 취업비자를 고려하시게 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이 Market Research Analysts, Marketing Specialists, Marketing Managers, Advertising and Promotions Managers 등입니다.

불과 4-5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나 마케팅 전문가와 같은 직업들은 H-1B 규정이 요구하는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으로 간주되어 별 무리없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당 직종이 전문직종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하

는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 (RFE) 발급률과 기각률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마져 마케팅, 홍보 분야 직업군이 증가하면서 예전과는 달리 반드시 학사 학위를 최저학력으로 요구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직군에 대한 이민국의 입장 변화는 대기업이나 마켓 리서치 전문회사가 아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마케팅 전공자의 성공적인 H-1B 승인을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마케팅 관련 직업에 대한 이민국의 RFE를 보면, 최소 학사 학위가 관련 마케팅 업계 전체 또는 해당 스폰서 고용주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을 증명하거나 또는 해당 보직이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을 요구할 정도로 복잡하고 특수하여 관련 학위가 없는 직원의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민국이 납득할 수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외에도 담당 이민 변호사의 창의성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H-1B 스폰서 회사와 동종 업계 및 비슷한 규모에 있는 불특정 다수 회사의 채용계시관이나 Monster.com같은 채용 전문 웹사이트

들 실제로 리서치해보면 마케팅 관련 보직에 대해 준학사 학위자나 고교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업계 전체가 학사 학위를 요구한다는 이민국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해당 스폰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해당 보직의 특수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답변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 로펌에서 진행한 케이스들 중 대표적인 케이스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A 고객은 마케팅 전공자로 한인 중소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전공상 가장 적합한 마케팅 전문가 보직으로 예전 변호사들을 통해 H-1B를 신청했지만, 2년 연속 기각을 당했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추어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민국의 기각 사유였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스폰서 회사의 규모는 작지만 마케팅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회사라는 점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확장계획을 들어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2번이나 기각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케이스는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B고객은 우수 패션스쿨에서 International Trade and Marketing for Fashion Industries

공학 학위를 받은 재원이었고, 스폰서 회사는 소규모 패션 스튜디오였습니다. B고객은 패션마켓 리서치 분석가로서 필요한 서류와 함께 H-1B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RFE를 발급하여 스폰서 회사의 규모를 지적하며 해당 보직이 H-1B 전문직임을 입증하고 했습니다. 저희 로펌은 철저한 시장조사에 근거한 스폰서 회사의 구체적인 향후 마케팅 전략플랜과 해당 스폰서 회사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유명 글로벌 패션 브랜드 회사의 소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보직의 특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보직 분석표 (Job Description)와 해당 직원의 패션마케팅 전문성을 연관시켜 고객의 전공과 하고자 하는 업무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케이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승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케팅 전공자로서 마켓리서치나 마케팅 전문가로 H-1B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분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취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H-1B는 각 전공별로 경험이 풍부한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SONGLAWFIRM

송동호 종합로펌 최강 이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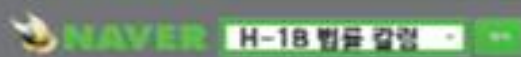
# SONG LAW FIRM

ATTORNEYS & COUNSELORS AT LAW



취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시대의 **H-1B**,  
**송동호 종합로펌**이 함께 합니다.

전공별 H-1B 성공전략을 담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만의 스페셜 칼럼! H-1B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H-1B 가능 전공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Systems / Technology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 Accounting  
 Hospitality Business / Hotel Management  
 JD / LLM / Law School

Art & Design / Fashion Design / Interior Design  
 Social Sciences / Sociology / Psychology  
 Physical Therapy

## 👛 기업 고객

국제법  
 금융법  
 노동 및 고용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상법 및 M&A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프랜차이즈법

## 👤 개인 고객

가정법  
 노동 및 고용법  
 부동산법  
 사고 손해  
 상법  
 세금, 상속, 유언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파산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LMONT    385 Concord Avenue, Suite 002, Belmont, MA 02478

songlawfirm1

songlawfirm LLC

songlawfirm

SONGLAWFIRM.COM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 F 201.461.0032 |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롬렛(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1.2M 히바치+스시, 플리커 면허증  
좋은 매매가격 \$3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플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아침/점심 보스톤쪽 주6일 영업 연매상 \$300,000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단독건물, 셀러은퇴(건물주)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롬렛,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플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롬렛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롬렛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좋은 렌트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롬렛+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교육원

## 아카데미 프로그램

### 1. Weekend Program:

SAT I,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교육경험 완성

###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차게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목적의 강사를 선정

###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대회,  
과학 올림피아드을 위한 전문 강사진

## 2017-201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원서 작업 & 진학 상담

1.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

2. 전,현직 입학 담당자와  
어드바이저 선생님

## 프리미엄 가디언 프로그램

1.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와  
믿을 수 있는 가디언

2.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으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집중 공부

3. 다양한 경시대회 준비 및 설어캠프 활동

## Special 섬머 프로그램

1. 전문적, 체계적 2-4주 보딩 관리

2.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3. 얻을 수 있는 교수진과 다양한 수업 진행

보스톤 교육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NEW OFFICE LOCATION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9

